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2호 6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12 호 (250)
1964년 6월 (하)
(반 월 간)

차 례

—문답 학습—

사회주의 하에서의 혁명의 계속 문제

《혁명을 시작한 이상 그것을
공고화하며 계속하여야 한다.》(레닌)*

로 성 훈

일반적으로 혁명을 계속할 데 대한 문제—이것은 시작된 혁명을 그의 종국적 목표에로까지 계속 철저하게 끌고 나갈 데 대한 전략적 문제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혁명의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것은 시작된 사회주의 혁명을 그의 종국적 목표에로까지 이끌어 가기 위한 전략적 원칙으로서 제기된 것이다.

혁명을 시작한 이상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끌고 나갈 데 대한 문제는 원래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상으로 제기되여 있었다.

그들은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계속 이행에 관한 사상으로서의 계속 혁명의 사상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전취로부터 공산주의 단계에까지, 말하자면 로동 계급이 자기들의 세계사적 사명을 끝낼 때까지 혁명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상을 제기하였다. 맑스는 이미 1850년에 쓴 자기의 저서 《1848년부터 1850년까지의 불란서 계급 투쟁》에서 《사회주의는 **계속 혁명의 선포**이며 그것은 **계급 차별 일반의 폐절**, 이 차별을 낳는 모든 생산 관계의 폐절, 그리고 이 사회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념의 변혁 등에 이르는 필수적 과도 단계》라고 썼다.(맑스 엥겔스 선집 제 1 권, 1963년 판, 222 페지)

또한 레닌도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이 주권의 전취로서 혁명을 승리한 이후에도 공산주의에로 가는 과업을 완성할 때까지 혁명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상을 한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레닌은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고 자본주의가 달성한 생산력 수준보다 더 높은 생산력 수준을 달성하며 사회주의적 문화 혁명과 사상 혁명을 수행하며 나아가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극복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계급 일반을 폐절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주권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도 기본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혁명의 전부로 간주되여서는 안 된다. 주권의 고수 및 공고화가 그의 전취보다 더 어려운 과업으로 되는 이 혁명에 있어서는 문제가 달리 선다.

혁명은 주권의 전취 이후 도시와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시기에는 물론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

---

* 레닌 전집 제 24 권, 114 페지.

설의 시기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혁명은 중단되지 말고 종국적 승리에로, 완성에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립장에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 하에서의 혁명의 계속에 관한 전략적 원칙을 천명하였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사회주의가 승리한 조건 하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의 극복에 이르는 계속 혁명의 필요성과 목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계속 혁명의 중심적인 과업;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에 력량을 집중할 데 대한 계속 혁명에서의 력량 배치 문제 등 전략적 방침을 주고 있다.

테제는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당면한 구체적인 제 대책들을 천명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략 전술적 방침은 우리 당 로선과 정책의 밑바닥을 관통하고 있는 시종일관한 흐름이다.

당은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한 이후에도 혁명을 계속하는 원칙에서 대중을 사상적으로 교양하여 왔고 자력갱생의 혁명 로선을 수립함으로써 이 원칙을 가장 철저히 관철할 수 있도록 대중을 령도하여 왔다.

우리는 혁명의 계속에 관한 테제의 사상과 당의 이러한 방침을 옳게 파악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천리마 총로선과 그에 따르는 개별적 정책들을 옳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그를 자기 사업에서 성과 있게 구현할 수 있다.

1, 왜 혁명을 계속해야 하는가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이것은 물론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이 달라붙은 세계사적 위업의 견지에서 볼 때 하나의 기본적인 리정표의 점령에 불과하다.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착취 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후에도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남아 있고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명을 계속해야…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이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혁명을 계속할 데 대한 우리 당의 기본 출발점이다.

우리는 혁명을 계속함으로써만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할 수 있고 각 방으로 공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있다.

우리는 혁명의 계속으로써만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앙양된 로동 계급과 농민의 혁명적 열의를 계속 견지할 수 있고 더 높일 수 있으며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성과 있게 동원할 수 있다.

우리는 혁명을 계속함으로써만 또한 고도로 발전된 경제와 문화, 조화롭게 발전된 도시와 농촌을 건설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착취 제도에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이리 하여 혁명을 계속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 간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는 력사적 과업의 해결 과정으로 된다. 따라서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세계

사적 사명에 충실하는 길이다.

만일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일정하게 추진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이 향상되였다고 하더라도 혁명을 계속 추진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혁명의 전취물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전진이 아니라 뒤로 물러 서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혁명 운동은 전진이냐 후퇴냐 하는 두 길 밖에 있을 수 없다.

혁명을 계속 추진시키지 않을 때 침체와 퇴보는 불가피적인 것이며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가 식어지고 낡은 사상 잔재가 되살아 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로 된다. 만일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시기에 그렇게도 혁명적이였던 로동자들이 열의가 식어지고 점차 안락한 생활과 놀고 먹는 것만을 좋아 하게 된다면, 그리고 협동 농민들이 개인 터밭에만 마음이 쏠리게 되고 지어 개인 경리에로 되돌아 갈 것을 원하게 된다면 이것은 혁명이 적극 추진되지 않는 사정과 결부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혁명 발전에 엄중한 손실을 끼치게 될것이며 구경은 사회주의 제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혁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국제 혁명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필수적인 과업으로 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혁명의 계속 문제는 물론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문제, 그의 완성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국제 혁명의 과업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성과적 건설은 바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제국주의 체계에 대한 사회주의 체계의 승리를 촉진하는 과정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는 도대체 한 나라 범위에서의 혁명의 종결을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는 그것이 남아 있는 한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부단한 공격을 감행하며 음으로 양으로 전복 활동을 감행한다. 이것은 제국주의 두목들의 그 어떤 《선악》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 자체의 본질과 관계되는 근본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나라들은 대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반드시 혁명 투쟁의 립장을 계속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레닌은 벌써 10월 혁명 직후에 쏘베트 정권이 전 세계의 자본가들과 대립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루차 강조하였다. 레닌은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나라들이 당하게 될 혁명 투쟁의 간고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의 타개를 국제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 결부시켰다: 《혁명은 한 나라에서 찬란한 성과를 거두면서 시작되여도 아마 고통스러운 시기들을 겪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세계적 규모에서만, 그리고 모든 나라 로동자들의 공동적 노력에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집 제 27 권, 471 페지)

사회주의 나라들은 국제 자본과 직접 대립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자본가들의 착취 하에서 고통 받는 모든 피착취 근로 대중의 편에 철저히 서 있어야 한다는 의리적 견지에서도, 그리고 그들의 해방 투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투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견지에서도 혁명에서 먼저 손을 뗄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이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떼여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만일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의 일정한 성과를 자랑만 하고 다른 나라

에서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달가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혁명을 계속하기 싫어 하는 태도일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로부터의 완전한 리탈로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의 성과가 크면 클수록 국제 혁명의 승리를 위해 더욱더 물심 량면의 지지와 성원을 주어야 한다.

만일 어떤 공산주의자들이 국제 혁명에 대한 지지 성원을 맑스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혁명 수출》론과 뒤섞어 놓으려 한다면 이것은 벌써 혁명을 계속하려는 립장, 국제주의적 립장으로부터의 리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혁명 수출》을 구실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게 하고 다른 편으로는 자신들이 국제 혁명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손을 떼려는 태도를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립장에다 그 어떤 《국제주의》라는 구호를 결부시키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까마귀가 장미를 물고 꾀꼴새 역을 놀아 보려는 격일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 나라의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동시에 세계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의무이다.》(《우리의 인민 군대는 로동 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 교양 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국제주의적 의리를 저버릴 수 없으며, 자기 나라에서와 온 세상에서 혁명이 끝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사회주의 하에서도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국내 국제적 혁명 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필연적인 객관적 요구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하에서 계속되여야 할 혁명은 어떠한 혁명인가?

2, 어떠한 혁명을 계속할 것인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사회주의 하에서 어떠한 혁명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명백한 해답을 주고 있다. 혁명을 계속하여 공산주의에로까지 가자면 아직도 남아 있는 도시와 농촌 간의 기술, 문화, 사상 령역에서의 차이와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형태에서의 차이,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야 하며; 그리 하여 총체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 간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혁명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이다.

테제는 이 다섯 가지 혁명 과업 중에서도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사회주의 하에서 계속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으로 규정하였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없애야 할 혁명적 목표인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 간의 차이 자체가 중요하게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 간의 기술, 문화, 사상 상 차이에 그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며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업과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하여 무

었보다도 먼저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세 가지 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테제)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제시한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혁명 과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구체화이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의 근본 지향은 인민 대중을 온갖 고통에서 해방하고 다같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큰 고통의 뿌리부터,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뿌리부터 빼 버려야 한다.

현 세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고통의 뿌리는 계급적 착취와 압박이다. 이것은 고통의 가장 큰 뿌리일 뿐만 아니라 기타의 고통을 조건 짓는 기본 바탕이기도 하다.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또 정권을 잡은 이후에 있어서 우선 계급적 압박을 청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과업이 끝난 이후에 있어서 계속하여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과 무지의 고통에서 해방하며 낡은 사상의 압박에서 해방해야 한다는 것도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전면적인 전개—이것은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이후 혁명의 필연적인 단계로 되며 국내적인 견지에서 볼 때 혁명의 마지막 과업들로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은 사상 혁명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상 혁명 과업을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의 과업과 나란이, 독립적인 혁명 과업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술 혁명, 문화 혁명에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업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당이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창조적 태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 실천의 제반 력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내린 귀중한 결론이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모든 사업에서 사상 사업을 앞세울 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고 관철하여 왔는바 그것은 바로 혁명 사업 자체의 객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였다.

우리는 사상 혁명에 선차성을 부여함으로써만 근로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성과 있게 높일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자각적인 투쟁을 통하여,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이 제도를 수호할 수 있으며 이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만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의 성과적 추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상 혁명을 앞세워야 하는 것은, 이 혁명이 기술이 없거나 적은 곳에 기술을 도입하는 기술 혁명이나 또 문화가 뒤떨어진 곳에 문화를 도입하는 문화 혁명과는 달라서 원래 존재하는 사상, 그것도 주입하여야 할 공산주의 사상과는 정면으로 대립하는 부르죠아 사상과의 심각한 투쟁을 의미하는, 보다 간고한 성격을 띠는 혁명이기 때문이다.

사상 혁명을 앞세우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상 의식의 발전이 물질적 발전에 뒤떨어진다는 사정과 일정한 기술 문화적 조건에서는 사상 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논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이다.

사상 혁명을 소홀히 하거나 뒤'자리에 미루어 놓는다면 그 어느 한 혁명 과업도 옳게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사상 혁명에서 근로자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에 특별한 주목을 돌렸다.

계급 교양을 뒤로 미루어 놓는 공산주의 교양이란 추상적인 근면과 사랑을 설교하는 종교의 교리와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사상 사업에서 기본을 잊어 버린 것이며 《심장》과 《척추》를 잃어 버린 것이다.

사상 혁명에서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옳바른 결합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이 량자의 결합 원칙을 도덕적 자극의 선차성에서 보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대중의 혁명적인 지향을 반영한 것이며 결국에 가서 우위를 차지해야 하며 지배적으로 되여야 할 도덕적 자극의 장래 위치를 고려한 것이다.

도덕적 자극에 선차성을 부여하지 않거나 물질적 자극 일면만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사람들을 부르죠아 사상에서 벗어 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리기적이고 개인-본위적인 데로 이끌어 가게 할 따름이다.

우리는 사상 혁명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기술 혁명, 문화 혁명에 대해서도 중요시하는 립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은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이후 다같이 전면적으로 나서는 통일적인 혁명 과업들이다.

사상 혁명을 앞세워야 하지만 이것은 기술이 적극 도입되는 조건에서, 문화적 생활 환경이 더 잘 지어지고 사람들의 문화적 소양이 높아지는 조건에서 보다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기술 혁명도 그것은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적 각오가 있어야 성과 있게 실현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문화 혁명 특히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문화 혁명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것이 사상 혁명, 기술 혁명과의 호상 련계 밖에서는 잘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술 혁명의 적극적인 추진은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축성을 위한 필수적 요구로도 된다. 우리는 부단한 기술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만 사회주의에 적응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축성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가 달성한 생산력 수준보다 더 높은 생산력 수준을 달성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수준에도 오르기 전에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그 어떤 기술적 수준에 완전히 도달한 것처럼 간주한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서 사회주의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그릇된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혁명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유해로운 작용을 놀 따름일 것이다.

문화 혁명도 고도로 개화 발전된 새로운 사회주의적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업으로 된다. 다만 문화가 일정하게 개화되고 근로자들의 재부로 되였고 그들 자신의 적극적인 창조물로 되였다는 것으로써 문화 혁명의 종결을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기술, 문화, 사상 혁명 과업들을 그의 호상 련관의 견지에서 결합시킬 데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높이에로 올려 세우기 위한 목표에도 커다란 주의를 돌리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만 이에 뿌리 박고 있는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형태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도 종국적으로 극복하고 공산주의 사회에로 들어 갈 수 있다.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도시와 농촌 간,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 만큼 이것은 특히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농민을 로동 계급의 수준에 빨리 끌어 올리기 위한 투쟁으로 되여야 한다.

3, 농촌에서의 계속 혁명

사회주의 하에서의 혁명의 계속 문제는 농촌에서 특별히 날카로운 문제로 된다. 그것은 농촌이 처한 사회-력사적 제 조건,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 해결의 제반 특성과 관련되여 있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동 계급의 책임적인 지도와 지원에 대한 문제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민은 그의 력사적 처지와 제한성으로 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서만 자기의 해방 문제를 완전히,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급이다. 그러나 동시에 농민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에서 로동 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강력한 력량이다. 로동 계급은 농민과의 동맹을 부단히 강화하며 그들을 로동 계급의 수준에로 부단히 이끌어 올림으로써만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농업은 그의 특성으로 하여 자체의 생산 도구와 물질-기술적 토대의 축성을 자체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문이며 따라서 이를 공업에 의존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문이다. 동시에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 경제의 2 대 부문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고 경공업 원료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촌 경리를 공업 발전에 따라 세워야만 전체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인민 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에로의 성과적인 전진을 보장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농촌 문제 해결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돌려야 한다.

정권을 잡은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응당히 자기들의 당과 국가를 통하여 농촌 문제를 책임 지고 돌보아 주어야 하며 더우기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다음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농촌 문제 해결에 력량을 돌려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후 혁명을 계속하며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전체 근로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기 위하여 농촌 문제의 해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테제) 이러한 원칙과 립장으로부터 우리 당은 협동화 이후 농촌 문제 해결에 특별히 관심과 력량을 집중하고 있다.

청산리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지도와 거기에서 제시된 방법 및 과업,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창설과 그 기능의 제고, 농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적 ·거점으로서의 군의 위치의 설정과 그 역할의 제고 등등을 비롯한 사회주의 농촌에 대한 지도 체계와 방법의 확립, 그의 부단한 개선 강화; 그리고 그에 따르는 농촌에 대한 물질적, 재정적, 기술적 및 인적인 강력한 지원은 농촌에서의 혁명의 계속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지도와 강력한 지원에 의하여 바야흐로 우리 농촌에서는 세기적인 변혁들이 계속 일어 나고 있다. 지난날 척박하고 《변덕 많던》 땅은 비옥한 땅으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는 땅으로 되고 있으며 농촌 마을은 아담한 문화 주택들로 꾸려지고 있으며 농민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들로 전변되여 가고 있다.

만일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뒤에도, 더우기나 튼튼한 공업 토대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도 농촌을 책임 지는 태도에서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앨 수 없고 로동 계급과 농민의 차이도 없앨 수 없다.

만일 농촌에 대하여 그 어떤 《독자성》을 운운하면서 협동 경리가 저절로 공산주의적 경리에로 발전할듯이 간주하거나 농촌을 긁어 오는 데 몰두한다면 이것은 필경 도시와 농촌 사이에 더 큰 장벽을 만들어 놓는 데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농촌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결코 공산주의에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은 자본주의 사상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며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뒤떨어지는 것이 법칙으로 되여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을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주권을 장악하는 첫날부터 자본주의가 남겨 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도와 주며 락후하던 농촌이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수준에 더욱더 접근하여 가는 것이 합법칙적이다.》(테제)

우리는 이 합법칙성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들어 가는 그 날까지 농촌을 적극 지원하면서 그 간의 간격을 메워야 한다.

농촌에서의 혁명의 계속 문제를 옳게 해결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지원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농민들을 어떻게 혁명에 조직 동원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농촌의 주인공은 농민들이다. 로동 계급의 지도와 지원은 이들을 혁명에로 옳게 발동시킬 수 있을 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에 대한 지원은 농민들의 사상과 생활, 요구에 적응하게 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농촌에서의 혁명의 계속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나서도록 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촌에 대한 지원은 또한 농촌 자체의 혁명 진지를 정치, 경제, 문화, 사상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이 도시의 수준에로 급속히 따라 오르도록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로동 계급은 농촌에 대하여 지도를 주고 물질적 지원을 줄뿐만 아니라 직접 거기에 파견되여 들어 가서 실천적 모범을 통하여 사상-정치적 영향을 주어야 하며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수준으로, 자각된 공산주의적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의 농촌에서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 올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혁명의 계속 문제 전반은 반드시 매개 나라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적 립장에 섬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4, 자력 갱생의 원칙과 계속 혁명

다 아는 바와 같이 혁명 투쟁에서의 기본 원칙은 자력 갱생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력 갱생의 립장에 섬으로써만 혁명의 계속 문제를 옳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비록 사회주의가 승리한 조건에서의 혁명의 계속 문제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책임적 립장과

창발적 립장을 떠나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승리한 사회주의는 결코 저절로 공산주의에로 성장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그 나라 인민들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혁명 투쟁의 계속이 요구된다.

혁명을 계속함에 있어서 중심 과업들로 되는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은 반드시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수행되여야 한다.

기술 혁명은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다른 나라 인민들이 달성한 기술적 성과를 배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도입하며 또 자체로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기술적 연구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길이며 따라서 기술 발전의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문화 혁명도 이것은 민족 문화를 건설하는 원칙에서 진행됨으로써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과학, 교육, 문화, 예술의 모든 분야가 자기 나라 인민의 력량에 의거하여 발전해야 하며 민족적 형식에 맞는 또 자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의 구체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되여야 한다.

사상 혁명에서는 특히 주체 확립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사상 사업의 내용과 제 방도들은 반드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실정에 맞아야 하며 그리하여 사상 사업이 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성과적인 건설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창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계속되는 천리마 속도는 우리 당의 이러한 자력 갱생의 원칙에 선 제반 로선의 합법칙적 결과이다.

우리 당의 천리마 총로선—여기에는 빨리 나가려는 당과 인민의 전투적 기백과 공산주의에까지 혁명을 계속하려는 굳건한 의지가 반영되여 있는바 이 로선에는 그 밑바닥에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이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 기초하여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시키고 있으며 또 이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 자체의 힘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과 남반부에서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고 있다.

남의 원조에만 기대를 걸거나 또한 남이 조건을 지어 주어야 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는 혁명의 계속 문제를 옳게 해결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조건이 좋고 국제적 원조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조건이 나쁘고 국제적 원조가 없어도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혁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원래 혁명이란 간고한 조건을 타개하고 나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 갱생의 원칙과 혁명의 계속 문제는 불가분적인 련관 관계에 놓여 있다.

또한 혁명 투쟁의 전략 전술은 적극적이여야 하는데 이것은 계속 혁명의 필수적 요구로 된다. 남에게 의거하는 전략 전술은 아무래도 피동적이고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우선 자체의 원천과 력량에 의거함으로써만 혁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혁명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매개 나라의 문제라는 것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나라 인민들이 주인의 립장에 서서 혁명을 추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응당한 것이다.

매개 나라의 혁명 운동은 그 나라 자체의 사회 력사 발전의 합법칙적 로정인 것이며 그 나라 인민의 현실적인 혁명 투쟁의 열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산주의 운동은 어떠한 외부의 〈지시〉나 〈압력〉에 의하여 〈부식〉될 수도 없으며 발전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것은 결코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하는 것도 아니며 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자기 나라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의 해방을 위하여, 국제 로동 계급의 위업을 위하여 공산주의 운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바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선집 제 6 권, 226~227 페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자력 갱생을 기본으로 하는 투쟁 방침을 세우지 않는다면 혁명 운동은 저조하게 되는 결과를 면할 수 없을 것이며 혁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결과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혁명 운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주의적 원조를 주어야 하며 또 주어지는 원조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자기 나라의 혁명 발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개 나라에는 다 자기 나라의 일이 있는 것이니 서로가 남에게 전적으로 의거해서 혁명 운동을 추진시켜 보려 한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다.

더우기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리성》에 기대를 걸고 자국의 혁명 문제를 운운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이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만일 어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도》를 렬강국들의 그 어떤 《성의》와 결부시키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혁명을 더 계속하려는 립장으로부터의 완전한 리탈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어떻게 제국주의자들까지도 포함한 렬강국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릴 수 있단 말인가?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이런 식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면서 전진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자력 갱생의 기치를 굳건히 고수함으로써만 혁명의 최후 승리에로의 계속 전진을 보장할 수 있다.

5, 계속 혁명에 관한 사상 교양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공산주의에로의 종국적인 이행을 보장하자면 전략 전술 자체가 계속 혁명의 원칙에서 수립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지 대중 자신이 시작된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사상 의지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철저히 실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은 계속 혁명에 관한 전략적 원칙의 수립과 함께 그러한 사상으로의 대중 교양을 통일적 과정으로 포치하여 왔다.

당은 도시와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뒤 전면적인 기술, 문화, 사상 혁명 과업을 포치하면서 특히 사상 혁명 분야에 크게 주목을 돌렸으며 여기에서 계속 혁명에 관한 사상 교양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1958년 11월 20일 전국 지, 군당 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에서 계속 혁명에 관한 사상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킬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이것은 공산주의적 인간들이 가져야 할 사상-도덕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문제 설정이였다. 이는 사회주의 하에서 혁명을 계속해야 할 일반적 요구와 특수하게는 뒤떨어진 우리의 현실을 하루 속히 선진 수준에 끌어 올리려는 우리 인민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였다.

계속 혁명에 관한 사상으로의 교양은 근로자들을 천리마 시대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되게 함에 있어서 커다란 정신적 밑천을 주었다.

우리는 이 사상에 기초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보다 멀다. 우리에게는 계속 전진이 요구된다.

《우리의 혁명은 계속 부단한 전진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 개의 혁명 과업의 실행으로써 만족할 수는 없으며 계속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 또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달성한 승리는 앞으로의 더 큰 승리를 위한 준비이며 더 전진하기 위한 토대이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137 페지)

우리는 도시와 농촌의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달성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이 땅 우에 공산주의 락원을 완전히 건설할 때까지 계속 나아가려는 정신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반부 인민들을 해방하고 전체 조선 인민들을 다같이 행복한 사회에로 인도하기 위한 일념에서도 계속 혁명에 대한 사상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국제 혁명에 관심을 가지도록 교양하여 우리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의 붉은기가 휘날릴 때까지 계속 투쟁하려는 사상으로 교양하는 면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는 계속 혁명에 관한 사상 교양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를 반드시 반수정주의 교양과 결합하는 측면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오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혁명을 그만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혁명을 계속하지 못 하도록 백방으로 방해를 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들의 배신적 행위를 철저히 규탄하는 방향에서 계속 혁명에 관한 사상 교양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을 계속할 데 대한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자신들이 시작한 혁명의 길에서 물러 섬이 없이 끝까지 충실하여 혁명적 절개를 지킴으로써 이 땅 우에, 온 지구 상에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가져 올 때까지 투쟁에 헌신토록 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에서 지방 공업이 노는 역할

홍 승 은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부단히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과 방조를 강화하는 것은 도시에 비한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청산하며 력사적으로 형성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는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정치적 동맹에 관한 문제, 인민 경제의 2 대 부문으로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호상 관계 문제를 포괄하며 이 량자는 밀접하게 련관된 두 측면을 이룬다.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는 도시와 농촌 간 련계의 경제적 측면을 이루며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정치적 동맹의 전제로, 그 경제적 표현으로 된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강화함에 있어서 공업 및 농업의 호상 관계를 옳게 해결하며 이 두 부문 간의 련계의 가장 합리적인 형태들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는 사회주의 하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옳게 설정할 데 대한 문제가 전면적으로 천명되여 있으며 공업을 농업에 더욱 접근시키고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방 공업이 노는 역할이 강조되여 있다.

테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지방에 공장을 광범히 건설한다는 것은 공업을 농업에 더욱 접근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테제의 이 명제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지방 공업 발전의 풍부한 경험을 개괄한 기초 우에서 내린 중요한 결론이다.

* *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공업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함으로써 농촌 경리에 각종 농기계를 비롯한 생산 수단들을 더욱더 많이 공급하여야 하며 또한 경공업을 발전시켜 농업 생산과 농촌 부업의 발전을 자극하는 한편 농촌의 소비품 수요를 원만하게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에서는 농촌의 분산성이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여야 한다.

테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협동화에 의하여 농촌의 분산성은 현저히 퇴치되기는 하나 사회주의 하에서 그것은 의연히 도시(공업)와는 구별되는 농촌(농업)의 중요한 특징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농촌 사업 일반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며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강화함에 있어서도 심중하게 타산하여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지역적으로도** 강화하여야 하며 전국 각지에 분산되여 있는 농촌에 용이하게, 최대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업 형태를 발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은 농촌에 용이하게, 최대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공업 형태이다.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의 동시적 발전을 견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중앙 공업과 중 소 규모 지방 공업을 합리적으로 배합 발전시키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공업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공업과 농업 간의 경제적 및 지역적 련계를 밀접하게 발전시켜 왔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대규모 공업은 사회주의 공업의 기본 형태이며 농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물질 기술적 토대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대규모 공업만이 사회주의 공업의 유일한 형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농업과의 련계에서도 그것만이 유일한 공업 토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규모 공업은 거대한 기술 경제적 우월성을 갖는 반면에 일련의 제한성도 가지고 있다.

특히 그것은 자체의 생산 기술 체계와 생산 조건으로 말미암아 광범한 분포가 제한되고 따라서 농업과의 지역적 결합에서 일정한 제약성을 가지게 된다. 물론 농업과의 련계에서 대규모 공업이 갖는 일련의 제약성은 농기계 작업소, 상품 류통 등의 환절들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으나 이러한 고리들을 매개로 하는 방법만으로써는 공간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산되여 있는 농업에 공업 생산 자체를 직접 접근시킬 수는 없다.

중 소 규모 공업은 대규모 공업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단위 생산 능력당 건설비와 생산물 원가가 높을 수 있지만 그 건설과 생산의 구체적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리용(보다 간편한 부대 시설과 유리한 자연 조건의 리용, 극히 저렴한 지방 원료, 자원의 사용, 규모는 작으나 성능 높은 기계 설비들의 도입 등등)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중 소 규모 공업은 자원과 수요가 있는 임의의 곳에서 쉽게 생산을 조직할 수 있는 높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연 지리적 특성과 관련되는 농업의 각이한 생산 조건에 적응하게, 그리고 각 지방 농촌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의 구조에 상응하게 공업 생산을 기동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하며 공업의 다방면적 발전, 농업의 다각적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농업과의 련계에서 대규모 공업이 갖는 상대적 제한성을 보충할 수 있게 한다.

더우기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대규모 공업을 전국 각지에 광범히 분포 발전시키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동안 농업과의 련계 발전을 지체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닌은 《방대한 식량, 원료 및 연료의 국가 예비를 조달하거나 수송하지 않아도 되는 지방의 소규모 공업을 발전》(전집 제 32 권, 491 페지)시키는 것이 농민의 형편을 신속히 개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리 하여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은 대규모 공업의 제한성을 보충하면서 공업과 농업 간의 지역적 련계를 강화하는 데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방 공업을 광범히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경공업이 담당하는 사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경공업은 광범한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들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농업 생산 및 부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동하여야 하며 또한 농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킴으로써 농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에 적극 복무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명을 다하자면 경공업 토대를 총체적으로 급격히 확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각 지방에 경공업 기지를 가져야 한다.

또한 경공업은 그 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중공업과는 달리 대규모 공업과 중 소 규모 공업을 배합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소비품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구조가 다양하고 일상적이며 따라서 기동적인 충족이 요구된다. 특히 농촌 주민들의 수요의 경우에는 각 지방의 기후, 풍토, 관습, 전통 및 기호 등등의 각이성과 관련하여 소비품 수요에서의 일반적 특징이 더욱 농후하게 나타난다. 각 지방에 분산적으로 형성되는 이러한 수요를 대규모 경공업의 집중적 생산만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몇몇 중앙 공업 기업소만으로써는 도저히 원만하게 충족시킬 수도 없다.

또한 경공업 원료도 각 지방에 광범히 분포되여 있으며 그 적지 않은 부분이 농업에서 생산되고 그것들은 각이한 지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적 수요를 기동적으로 충족시키자면 현지에 최대한으로 접근하여 지방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데 기초하여야 한다. 지방 공업에 의하여 동원 리용되는 지방 원료에서 농민들의 손을 거치게 되는 농산물과 부업 산물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지방 공업이 농촌에 최대한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의 본질적 사명과도 관련되고 있다.

우리 당은 보다 집중적, 대량적으로 조성되는 전국적 의의를 갖는 소비품 수요는 비교적 복잡한 기술과 국가의 중앙적인 원천들에 기초하여 중앙 공업이 생산 충족시키게 하면서 지방 공업은 지방의 원료 원천과 비교적 간편한 생산 시설에 의거하여 지방적 수요와 관련되는 소비품을 생산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한편으로는 소비품의 수요와 그 생산의 기술 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대규모 공업과 중 소 규

모 공업을 배합함으로써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며 다른 편으로는 농업과의 련계에서의 경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것을 농업에 최대한으로 접근시켜 농촌의 공업 기지를 강화하고 공업과 농업 간의 경제적 및 지역적 련계를 밀접하게 발전시킨 현명한 정책이다.

* *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에서 지방 공업이 노는 역할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매 단계에서 각이하게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축성하는 시기에 지방 공업은 대규모의 중공업과 경공업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원천을 조성하면서 공업의 토대 축성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또한 농촌의 소비품 수요는 물론 생산적 수요의 일부까지를 충족시키면서 농촌 경리의 발전,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적극 복무하여 왔다.

이 시기 당은 지방 공업을 주로 도영 공업의 형태로, 즉 도를 단위로 하여 발전시켰다.

농촌에서 개인농 경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농촌 경리 앞에 제기된 과업이 우선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고 또한 지방 공업 자체가 아직 미약하였던 당시에는 도를 단위로 하는 지방 공업의 발전이 합리적인 것이였다.

그러나 이 시기 농업과의 련계에서 지방 공업의 역할은 아직 전면적으로 발현되지는 못 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방 공업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미약성, 아직 협동화가 완성되지 못한 농촌 경리의 분산성, 자연 발생성과 관련되였다. 지방 공업은 아직 각 지방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기동적으로 충족시키고 지방의 제반 원천들을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으리 만큼 발전되여 있지 못 하였으며 따라서 공업과 농업 간의 지역적 련계를 강화함에 있어서 놀아야 할 자기의 사명을 충분하게 다할 수 없었다.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에서 지방 공업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을 전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가 축성되고 특히 지방 공업 자체의 기지가 대대적으로 확장된 이후부터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불과 수개월 간에 1,000여 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이 새로 일떠섰다.

당은 지방에 공장들을 광범하게 건설한 데 뒤'이어 그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지방 공업 체계를 확립하며 농촌 경리와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우리 당의 조치에 의하여 지방 공업은 종래와 같은 중앙 공업에 대한 보충적 역할의 정도를 벗어 나 이제는 중앙 공업과 함께 소비품 생산의 기본적 원천의 하나로서 각 지방 농촌에 조성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였으며. 농촌에 최대한으로 접근하여 있는 공업 기지로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과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였다.

특히 지방 공업은 이제는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도시와 농촌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련결시키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과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튼튼한 담보로 되였다.

군이 도시와 농촌을 련결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자체의 공업 생산 토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군이 지방 경제 발전의 종합적 단위로서 군내의 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를 유기적으로 련결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 경리가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게 되고 식량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 조건에서 군내에 광범한 농산 원료 기지가 조성되였으며 농촌의 경제 생활에서 자연 발생적 요소가 일소되고 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도 이제는 계획적으로 급속히 장성하게 된 것 등은 군을 단위로 하는 지방 공업 발전의 새로운 유리한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지방 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획적으로 급격히 장성되고 그 원료 원천이 더욱 광범하게 조성되게 된 것은 지방 공업으로 하여금 농촌 경리와의 밀접한 련계 밑에 군의 자연 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지방 공업이 군적 규모에서 조성되는 수요를 군내의 원천들에 기초하여 기동적으로 충족시키면서 군을 단위로 하여 공업과 농업 간의 지역적 련결을 확고히 보장하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매개 시, 군에는 평균 1.4 개의 식료품 공장, 1.1 개의 일용품 공장, 1.5 개의 직물 공장(자료는 1962년 현재)들을 포함하여 평균 10여 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이 있다.

거의 모든 시, 군이 가지고 있는 식료품 공장들은 군내 주민들의 일상적인 식생활과 관련되는 수 많은 품종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군들의 간장, 된장, 기름 등의 생산 능력은 벌써 군내 수요의 규모를 릉가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례컨대 창성 식료 공장에서는 1962년에 전국적인 년간 인구 1 인 당 소비 기준에 비하여 각각 1.3 배나 되는 간장, 된장과 2.4 배 이상의 기름을 군내 주민 1 인 당 소비량으로 생산하였다. 이것은 이 공장들이 식료품의 가장 기본적인 품종에 대한 군내 수요를 풍족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높여 군내의 식료품 수요를 더 좋게, 보다 다양하게 충족시키면서 전국적 수요의 충족에도 기여할 수 있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직물 공장도 거의 모든 시, 군에 설치되여 군내 직물 수요의 적지 않은 몫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일용 필수품 수요도 그 상당한 부분이 지방 공업 생산으로 충족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는 우리 나라의 지방 공업이 군내 경제의 종합적 발전과 군내 주민들의 수요에 적응하게 자기의 부문 구조를 갖추면서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우리 나라에서의 지방 공업의 급격한 발전은 지방의 자연 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며 농업 생산과 농촌 부업의 발전을 추동하여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부분 지방들은 산과 바다를 끼고 있으며 경지 면적이 제한되여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촌 경리의 발전, 농민들을 비롯한 지방 주민들의 수입 및 생활 수준의 향상은 산과 바다를 옳게 리용하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시종일관 《산을 낀 데서는 산을 리용하고 바다를 낀 데서는 바다를 리용하라》는 원칙에서 지방 공업과 지방 경제를 발전시켰다.

지방 공업의 급격한 발전은 농민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과 부업 산물을 제때에 수매함으로써 그들의 수입을 높이고 생산 의욕을 자극하며 또 그것을 제때에 가공하여 농촌에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장성하는 구매력을 실현시키고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농민들은 자기들이 생산 공급하는 각종 원료들이 자기 지방의 공장들에서 어떻게 가공 공급되는가를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며 자기들의 생산과 생활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 주는 지방 산업 공장들의 발전에 밀접한 리해 관계를 갖게 된다. 농민들은 농촌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의 자연 경제적 조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지방 산업 공장들에 더 많은 각종 원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지방 산업 공장들은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농업 생산 및 농촌 부업의 발전을 보다 추동할 수 있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를 철저히 관철시킨 창성군의 경험은 군내의 자연 경제적 조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군내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옳게 결합한다면 자연 경제적 조건에 기인하는 매개 지방들 간의 경제 발전 수준 상 차이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그것은,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밀접히 결합시켜 발전시키는 것이 농업 생산과 농촌 부업의 발전을 크게 추동하고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켜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생활 수준을 균등하게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게 지방 공업은 농업 생산물에 대한 수요자인 동시에 소비 상품의 공급자로서 공업과 농업 간 련계의 생산적 및 소비적 측면에 다같이 작용하며 지방 시장의 용량을 확대함으로써 군을 단위로 하는 지방 경제 발전의 더욱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지방 공업의 대대적인 발전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서 큰 작용을 한다.

김 일성 동지가 일찌기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당이 공장들을 각지에 골고루 분포시킨 리유의 하나는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급속한 시일 내에 없애자는 데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 공업이 전국 도처에서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공업의 광범한 분포가 이룩되고 공업 생산력 배치의 더욱 합리적인 균형이 조성되게 되였다. 최근 년간 지방 공업 발전의 비상히 높은 속도는 특히 종래 공업 토대가 없던 산을 많이 낀 지방들에서 더욱 현저하였으며 이 지방들도 지방 공업의 발전에 의하여 도시의 물질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였다.

지방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로동 계급의 대렬을 확대하고 매개 지방들에 로동 계급의 새로운 부대를 조성하며 전국 각지에서 그 지도적 역할과 영향력을 일층 강화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부양 가족 녀성들의 진출에 의한 녀성 로동자 대렬의 급격한 확대는 녀성 해방의 력사적 과제로서 엥겔스가 제기한 《녀성 전체의 사회적 로동에의 복귀를》 실현시키면서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매 가정들에까지 로동 계급의 사상과 생활 태도를 깊이 침투시키게 하였다.

지방 공업의 광범한 발전은 대도시에의 인구의 과도한 밀집을 청산하고 인구가 전국 각지에 균형적으로 분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지방 산업 공장들이 자리 잡고 발전하게 됨에 따라 군 소재지들은 일정한 인구와 문화를 가진 지방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였으며 그것들은 농촌과의 지역적 결합을 달성할 수 있는 더욱 유리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농촌의 락후성, 외계로부터의 고립, 미개성 등의 청산과 아울러 대도시에의 방대한 대중의 부자연한 밀집의 청산》(레닌 전집 제 21 권, 66 페지)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이리 하여 지방 산업 공장들은 도시 공업의 기술, 문화, 사상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청산하는 데 기여하는 로동 계급의 유력한 기지의 하나로 되고 있다.

테제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청산하고 량자 간의 차이를 없애자면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문화 수준, 사상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전 인민적 소유 관계를 농촌에 최대한으로 접근시켜 그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농촌에 대한 도시의 기술, 문화, 사상의 영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조밀한 그물로 전국을 덮는 또 하나의 전 인민적 소유의 공업 생산 기지 계통을 이루면서 농촌 지역에 최대한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 하여 그것은 군내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함께 군 단위에서 물질적 재생산 뿐만 아니라 전 인민적 소유 관계까지도 확대 재생산할 수 있게 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 간의 유기적 련계를 보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방 공업이 농촌(농업)에 대한 도시(공업)의 영향을 강화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소멸 과정을 촉진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논다는 것을 보여 준다.

* *

공업과 농업의 련계를 강화함에 있어서 지방 공업의 거대한 역할로부터 김 일성 동지는 모든 군들에서 이미 축성한 토대에 의거하여 지방 공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지방 원료 특히 농산물과 부업 산물을 가공하는 데 더욱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급속히 강화하고 생산 문화와 기업 관리 수준을 더욱 높여 군내의 농촌 경리와 기타 부문에 더욱 큰 영향을 주어야 한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높여 농촌과 기타 지방의 수요를 보다 다양하게, 더 좋게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에 의하여 창설 발전된 지방 공업은 자기 앞에 부과된 과업을 더욱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농업 생산과 농촌 부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공업과 농업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천리마 시대와 우리 음악

문 종 상

1

시대의 사상, 인민의 생활 감정에 대한 민감성은 오래 전부터 우리 음악의 중요한 특성을 이루고 있었다.

부르면 부를수록 사람들을 한없이 락천적인 정서 세계에로 이끌어 가는 우리의 민요들은 그것이 곧 당시 인민들의 생활 감정을 얼마나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농부가》, 《어부가》를 비롯한 다채로운 로동 가요들과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 도덕 생활을 반영한 임의의 서정 가요들을 상기해 보라!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의 거세찬 투쟁 과정에서 《강강 수월래》, 《쾌지나 칭칭나네》들이 창작되였으며 특히 《신아우》와 같은 투쟁의 기백으로 일관되여 있는 곡조들이 창작되였다.

우리 음악의 이러한 전투적 기백과 락천성은 30 년대의 혁명 가요들에서 더욱 풍부화되였다. 30 년대의 혁명 가요들이 오늘도 우리 천리마 기수들의 사상 감정을 격동시키고 듣는 사람들에게서 힘과 용기를 자아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를 반대하여 영웅하게 투쟁한 공산주의 투사들의 전투적이고 락관적인 사상 감정을 그 대로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우리 음악은 혁명 가요의 이러한 전통과 민요들의 풍부한 가락들을 옳게 계승하여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데서 질적인 비약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우리 음악이 당 사상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당의 확고한 지도에 의하여 발전되고 있으며 인민의 사상 감정을 대변하려는 창작가들의 목적 의식성이 또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로동당 시대, 천리마 시대의 들끓는 사상 감정과 기백을 담은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와 같은 작품은 우리 창작가들이 시대의 과업과 인민의 지향에 얼마나 민감하고 그것을 높은 예술성으로 구현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 하여 오늘 우리 음악은 시대와 생활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확고한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음악이 들끓는 천리마 시대의 사상 감정과 인민의 높은 지향을 보다 심오하게 다양하게 형상한 크고 무게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데서 우리 작곡가들은 아직도 많은 일을 하여야 하며 힘과 지혜를 다하여야 한다. 그 만큼 우리 생활은 넓어지고 인민의 사상 감정은 풍부해졌으며 그들의 미학적 요구도 높아졌다. 우리 음악이 참으로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이러한 영웅적 시대의 미감을 충족시킬 수 있고 인민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 추동할 수 있는 사상 예술적으로 걸출한 대작을 만들어 내는 데 모든 창작가들이 결정적으로 달라붙어야 한다.

2

새로운 시대와 생활과 인간 관계를 반영한 대작을 만들어 낼 데 대한 문제는 일찍부터 우리 창작가들 앞에 제기된 과업이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이미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과거 사회라면 수십 년 혹은 세기를 두고서만 달성될 수 있었던 그러한 창조적 성과와 경험들을 우리는 불과 20 년도 채 차지 못 하는 짧은 기간에 쌓아 놓았다.

항일 빨찌산들의 전투 위훈을 음악 형상적으로 일반화한 《압록강》과 같은 대작이 벌써 평화적 건설 시기에 창작되였던 것이다. 이 교성곡은 항일 빨찌산들이 장강을 건너 조선 인민의 기개를 온 천하에 시위한 보천보에서의 력사적 승리를 우수한 음악 형상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의 제 1 악장은 력사의 강 압록강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일제의 기반 하에서 수난을 겪고 있는 조국의 모습을 그 대로 련상할 수 있으리 만큼 훌륭하게 일반화되고 있다.

도도히 흐르는 장강에 대한 폭 넓고 웅심 깊고 장중한 선률 형상에 뒤'이어 계속되는 한 많은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 떼'목에 몸을 싣고 천 리 길을 흘러가는 청춘의 가슴 속에 움튼 랑만과 애틋한 감정 등 가지가지의 음악 형상들이 서로 교체되면서 어느듯 사람들의 가슴 속에 조국에 대한 뜨거운 정과 애닯고도 통분한 그러나 조국의 미래에 대한 태산 같은 신념을 안겨 준다.

《압록강》의 장중한 울림은 사람들에게 시대와 생활과 민족의 감정을 감촉케 하는바 여기에 이 작품이 가지는 형상의 힘이 있는 것이다.

투사들의 백절 불굴의 정신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고매한 정신 세계와 풍부한 인간성은 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에서도 훌륭하게 일반화되였다. 이 가극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깊고 엄숙한 음악 형상들은 개구장으로 《행세》하면서 어려운 혁명 공작을 하는 주인공 최 병훈의 진정한 혁명가적 성격을 천명하여 주고 있다.

이 가극의 여러 장면에서 새로운 인간 성격들을 천명하는 아주 섬세한 음악적 명암을 찾아 볼 수 있는바 이것은 우리 음악이 새 형의 인간 성격을 음악 형상으로 일반화하는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는 것이다.

천리마 시대에 꽃피고 있는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 관계들을 반영한 가극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어머니의 품》, 《독로강반에 핀 꽃》 등도 우리 음악에 새로운 질적 특성을 첨가하였다.

이런 작품들에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도덕 품성이 오늘의 시대 사상과 결합되여 새로운 공산주의적 도덕으로 더욱 발전됨으로써 감동적인 이야기로 충만되여 있는 우리 현실의 면모가 진실하게 반영되고 있다.

현실의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상화하는 데서 우리 음악이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물론 아직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며 음악적 성격화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탐

구한 이 새로운 싹들은 우리 음악이 장차 더욱 풍요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붉은 서광》과 같은 음악 무용 서사시들과 《밝은 태양 아래》와 같은 음악 무용극 작품들은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 력사와 천리마 시대의 위대성을 형상적으로 일반화할 데 대한 생활의 요구에 의하여 창조된 새로운 쟌르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유구한 력사와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백두산, 금강산의 기상을 타고 난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 소박하고 근면한 인민의 고매한 정신 세계와 전대미문의 수난 속을 뚫고 나온 인민이 겪은 슬픔과 비애, 치솟는 울분과 증오, 승리의 기쁨과 열정 등 각가지 곡절을 체험한 우리 민족의 감정과 기분이 반영되고 있으며 오늘은 낡은 것을 겨부시고 인류의 희망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인민 즉 자기의 력사적 임무를 자각한 인민의 그 위대한 정신 세계와 투쟁이 반영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작품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며 오늘의 삶에 대한 다함 없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

해방 후 시기의 우리 음악이 청소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이 성과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작 창작에서 우리가 달성한 성과는 위대한 현실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것이며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산천도 사람도 몰라 보게 변모한 시대, 이 시대를 령도하고 이 시대를 창조해 놓은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력사적 위훈을 후손 만대에 전해 줄 수 있는 기념비적인 대작이 우리에게는 적다.

우리의 교향곡들에서는 위대한 천리마 시대의 호흡과 감정, 기분이 음향적으로 울려 나오지 못 하고 있으며 우리의 교성곡들에서는 《압록강》에서 달성된 음악적 일반화의 길이 계속 개척되고 확대되고 공고화되지 못 하고 있다. 우리의 가극, 창극, 음악 무용 서사시적 작품들에서는 새 시대의 인간 성격들을 음악 형상적으로 깊이 있게 구현하지 못 하고 있다.

오늘의 영웅 서사시적 현실은 작곡가들의 창작을 위하여 얼마나 무궁무진한 생활적 토양인가! 수천 년을 두고 인류가 념원해 온 진실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 인간의 모든 재능과 지혜와 능력이 활짝 꽃피고 있는 그런 생활! 이 위대한 현실 생활은 응당 그에 상응한 깊이와 폭에서 음악 형상적으로 반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시기 걸출한 음악을 창작한 작곡가들은 인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이 한갖 꿈과 리상과 념원으로만 되고 있던 그런 시대에 살면서조차 자유롭고 행복한 인민 생활에 대한 위대한 송가를 창작해 내였다. 그런데 이전의 작곡가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격동적인 사실로 충만되여 있는 사회에서 살며 창작하는 우리 작곡가들이 이 위대한 천리마 시대에 대한, 영웅적 인민에 대한 우람찬 송가를 창작해 내지 못 한다면 그것은 시대와 생활이 제기한 숭고한 임무를 다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거창한 천리마 현실을 음향적으로 일반화한 걸출한 음악 대작들을 더욱 왕성하게 만들어 내지 못 하는 것은 우리 작곡가들이 시대 앞에 지닌 임무에 대한 예술가적 자각이 부족한 데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 작곡가들의 창조적 포부는 크지 못 하며 시대를 내다 보고 그것을 시대의 높이에 서서 일반화하려는 창조적 대담성과 사상적 안광, 창작적 환상도 넓지 못 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생활 내용을 깊고 폭 넓게 형상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일부 작품들에서는 생활 내용들을 음악적으로 일반화한 형상들을 창조할 대신에 극적 줄거리 발전을 묘사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는 현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흔히 창조적 탐구가 결여된 안일한 창작 태도에서 생기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음악은 그 자체가 묘사성에서 극히 제 한된 예술이다. 음악에서 묘사는 인간의 미묘한 정신 세계의 내'적 움직임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는 경우에만 자기의 의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묘사의 가능성을 충분히 리용하면서도 기본 관심은 인간의 정신 세계의 운동을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즉 음악 형상적 울림으로 일반화하겠는가에 두어야 한다.

관현악, 합창, 가극을 비롯한 큰 형식에서 천리마 시대의 호흡과 맥박을 감촉할 수 있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매한 감정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음악 형상을 창조하자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3

우리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간고하고 벅찬 투쟁을 통하여 많은 것을 건설하였고 많은 것을 창조하였지만 아직도 자기의 할 일을 다하지 못 하였다. 우리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조국의 절반 땅은 여전히 원쑤들의 발'길에 짓밟히고 있다. 같은 피'줄을 이은 수천만의 겨레들이 무서운 생활고와 도탄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오늘도 원쑤와 맞서서 피투성이의 판가리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는 비상한 로력 투쟁으로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당이 제시한 사상, 문화 혁명의 과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인민의 생활을 하루 속히 발전된 나라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어려운 과업 앞에 서 있다. 우리는 많은 고지를 넘어 왔으나 우리 앞에는 더욱 높은 고지가 우뚝 솟아 있다.

·시대는 의연히 우리 인민에게서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기분, 비상한 영웅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음악은 바로 시대의 이와 같은 요구에 더 잘 대답하여야 하며, 인민 대중을 줄기찬 로력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고 준엄한 계급 투쟁에로 부르는 자기의 전투적 기능을 더 훌륭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음악 예술은 인민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데서 심오성과 더불어 전투적이고 혁명적이여야 하며 원쑤와의 판가리 싸움에 나선 인민의 예리한 무기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적들의 심장을 곧바로 육박해 들어가는 장엄하고 씩씩하고 영웅적 기백으로 충만된 혁명 가요들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적인 노래는 총탄이 미치지 못 하

는 곳에서 적들의 심장을 꿰뚫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찌기 레닌은 혁명 가요의 사상적 영향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아무리 경찰들이 접어 들어도 세계의 모든 대도시들에서 모든 공장 부락들에서…고용 노예로부터의 인류의 멀지 않은 해방을 일치하게 노래하는 프로레타리아적 가요가 울려 나오는 것을 막아 낼 수는 없다.》(《독일에서의 로동자 합창단들의 발전》)

이와 같이 혁명 가요는 대중을 단결시켜 원쑤 격멸의 투쟁에로 혁명적 위훈에로 고무 추동할 뿐만 아니라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며 전률케 하는 강유력한 사상적 무기로 된다.

해방 후 시기의 우리 음악을 놓고 볼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혁명적인 내용을 가진 노래들이 적지 않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창작된 《결전의 길로》와 함께 전쟁 직전 시기에 창작된 《조국 보위의 노래》,《빨찌산의 노래》들이 인민을 성스러운 싸움에로 불러 일으킨 그 위대한 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매일과 같이 스피커를 통하여 울려 나오는 혁명적인 노래들은 길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며 승리의 신심을 가슴 가득히 안겨 준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훌륭한 혁명 가요들이 많지 못 하며 인민은 오늘의 장엄한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한 훌륭한 혁명 가요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인민은 우리의 천리마 대진군을 더욱 고무 추동해 줄 뿐만 아니라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기반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탄압을 박차고 영웅적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게 우리의 벅찬 생활과 힘 있는 성원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강한 호소력을 가진 혁명 가요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조국의 절반 땅은 이 시각에도 세찬 화염에 휩싸이고 있다. 라지오를 통하여 들려 오는 방송원의 급하고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부르쥐기도 하며 참을 수 없는 격분과 흥분에 싸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울려 오는 우리의 일부 노래들은 이러한 감정과 기분을 살리지 못 하고 있으며 어쩐지 아쉬운 기분에 사로잡히게 한다. 최근에 창작된 적지 않은 행진곡적인 노래들이 바로 이렇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노래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벅찬 우리의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으며 격동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심정을 울려 주기에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행진곡적인 노래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은 노래들의 성격적 특징이 없고 일반적인 호소에 그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서 구체적이며 생동한 정서적 감흥을 불러 일으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최근의 행진곡풍의 노래들은 《서로 엇비슷해서 분간할 수가 없고 딱딱하고 웨치기만 하기 때문에 노래다운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행진곡풍의 노래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드러내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종류의 음악 창작이 그러하지만 특히 혁명적 내용을 가진 행진곡풍의 가요 창작은 매우 어렵고 책임적인 분야이다. 그것은 이 노래들이 모든 사람

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상 감정을 노래하면서도 그에만 고유한 개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 모든 것이 불과 8～16 소절의 범위를 멀리 벗어 나지 않는 짧은 가락에서 일반화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래의 선률적 가락에는 모든 것이 구비되여 있어야 한다. 즉 만인의 심정을 틀어 잡을 수 있는 사상적 넓이, 뚜렷한 성격, 창작적 개성이 구비되여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없으면 군중을 끌 수 없고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행진곡풍의 노래들이 사람들의 감정을 흥분시키고 그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용수철처럼 탄력이 있고 약동하는 맥박을 가진 넋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가요의 넋은 작곡가가 위대한 시대의 거류 속에서 자기 심장을 불태우며 천리마 기수들의 그 열화와 같은 심정으로 생활을 노래할 때에만 생겨 난다. 작곡가 자신이 자기의 노래에 온 정열과 사랑과 심혈을 부어 넣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노래의 넋은 생겨 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천리마 시대의 넋이 담긴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가요—우리 음악은 이런 것으로 더욱 풍부화되여야 한다.

4

우리의 생활이 더욱 커지고 깊어 짐에 따라 인민은 참으로 사상 예술적으로 무게 있는 대작과 혁명 가요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다양한 현실 생활의 흥겹고 유쾌한 기분을 반영한 산뜻한 노래와 음악들도 더욱 풍성하게 창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람찬 로동의 끝에 맛 보는 휴식의 한 때를 더욱 흥겹게 해 주는 경쾌한 기악 작품들과 음악 스케치, 바라이테와 경가극을 비롯한 다종다양한 노래와 경음악들이 필요하다.

사람들에 대한 사상 정서적 작용은 결코 가극이나 창극, 교성곡이나 관현악 작품들과 같은 비교적 큰 음악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지로 좋은 서정 가요들과 경쾌한 각종 경음악들은 인간 생활의 친근한 동반자로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윤택케 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놀고 있다.

물론 노래와 경음악은 현실 생활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상 생활에 매우 친근하게 참여하면서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을 앙양시키며 현실에 대한 락천적인 생활 감정을 배양한다.

우리는 하루 일을 끝마친 청년 남녀들이 행복에 겨워 부르는 《하늘은 푸르고 내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를 들을 때 저도 모르게 수령에 대한 흠모와 사회주의 락원에 사는 행복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군 한다.

우리의 생활 자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흥겨운 기분으로 가득 차 있을진대 응당 우리의 극장 무대들에서도 이러한 생활을 반영한 다종다양한 경쾌한 음악 작품들이 울려야 하지 않겠는가! 좋은 노래도 있고 유쾌한 음악도 있고 대사도 있고 시도 있고 무용도 있는 경가극, 음악 스케치, 바라이테를 비롯한 다채로운 음악 작품들—청중의 감정을 정화시키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며 생활을 더욱 흥겹게 체험하게 하는 음악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 *

생활과 인간의 정신 세계를 노래하는 작곡가가 진실로 사람들에게 생활의 의의를 가르쳐 주며 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고무 추동하는 훌륭한 음악 작품을 창조하려면 작곡가의 심장이 우선 혁명적 열정으로 불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생활 발전의 기본 흐름과 그 속에서 움트고 성장하는 새로운 싹들을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생활을 음악적으로 일반화할 수도 없다.

참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음악 형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작곡가의 심장 속에서 생활과 인간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이 불타고 있어야 하며 생활을 똑바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넓은 사상적 안목과 인간에 대한 깊고 다방면적인 파악이 있어야 한다.

작곡가의 심장과 안목이 이렇게만 준비되여 있다면 사실 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데서나 《대교향곡》을 들을 수 있다. 압록강을 가로 막고 우뚝 솟아 오르는 운봉의 언제를 볼 때 우리의 위대한 힘에 대한 자부심과 이런 세기적 기념비를 세우는 시대와 사람들에 대한 큰 긍지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것은 문'자 그 대로 천리마 시대의 《대교향곡》인바 이러한 《대교향곡》들은 우리가 살며 일하는 도처에서 울려 오고 있다. 문제는 작곡가가 생활과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심정을 항상 간직하고 어떻게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찾아 내는가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또한 작곡가가 무게 있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비상히 깊은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여야 하며 모든 사회 현상들과 과학 문화에 대한 참으로 백과 전서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가령 시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 가사와 음악의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우수한 성악 작품의 창작을 바랄 수 있겠는가? 희곡 문학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지 못한 작곡가에게서 사상 예술적으로 우수한 가극 작품의 창작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적지 않은 작곡가들의 사상 예술적 준비 정도는 아직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들의 지식에는 빈 구석들이 적지 않다.

시대와 생활이 우리 앞에 제기한 보람찬 창조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창작하면서 자기의 소양을 더욱 높여야 하며 인내성 있게 학습하고 학습하면서 창작하는 기풍을 가일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음악 예술의 창조자들이다. 이것은 영예로운 과업이며 또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업이기도 하다. 이 과업은 당이 제시한 정확한 문예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작곡가들의 인내성 있고 이악한 창조적 탐구와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성, 문화성 제고에서의 미적 정서 교양

강 성 만

공산주의적 인간 풍모의 특질은 당성, 계급성이 확고하고 풍부한 인간성, 높은 문화적 소양이 겸비되여 있는 것이다.

현시기 당은, 일'군들이 로동 계급의 계급적 의식으로 확고히 무장하며 풍부한 인간성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은 일도 잘 하여야 하며 동시에 문화적 소양도 높아야 한다. 웃기도 하며 인정미도 있어야 한다. 당성이 강하면서 인간성과 문화성이 풍부하여야 하는 것이다.》(김 일성)

일'군들의 인간성, 문화성을 높임에 있어 미적 정서 교양은 자못 중요하다.

미에 대한 교양이란 생활에서 아름다운 것을 옳게 인식하며 《미의 법칙》에 맞게 생활을 창조할 줄 아는 능력과 정서를 배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에게서 미적 정서는 그의 인간미를 풍부히 하게 하며 문화성을 높이게 하는 바탕으로 된다.

인간성, 문화성은 미적 정서와 통일되여 있다.

인간성과 미적 정서

인간성은 고상한 인간 정서와 감정의 발현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 배려, 우의, 사랑은 도덕적인 의리와 함께 미적인 정서와 련관되고 있다. 미적 정서가 풍부하면 인간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리해하며 그를 열렬히 사랑하며 또한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형성하려는 심리와 충동이 발현된다. 따라서 미적 정서는 사람들을 고상한 인간적 감정, 열렬한 우의와 사랑, 인도주의적 풍모를 가지게 한다.

또 미적 정서가 풍부할 때만이 사람들은 서로 생활적으로 어울리며 인간적으로 깊은 우의와 동지애가 형성된다. 그리 하여 서로 다른 사람의 정서 세계에서 일어 나는 심리적 파동들: 지향, 번뇌, 기호 등에 이르기까지 깊이 파악하게 되며 그에 대한 인간적, 동지적 배려를 돌릴 수 있게 된다.

오늘 우리 천리마 기수들 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높은 인간성의 발현들: 락오자를 개조하며, 한 생명을 위하여 수십 수백 명이 살과 뼈를 이식해 주며, 잃은 형제를 찾아 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품성 등은 모두 그들의 고상한 인간적 감정, 높은 미적인 생활 정서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 정서와 감정이 메마른 사람에게서 인간성을 찾기는 어렵다.

미적 정서와 소양이 부족한 사람은 다정 다감하지 못 하고 언어, 행위에서 딱딱하고 거칠며 따라서 그 만큼 다른 사람과 인간적인, 우의적인 관계를 형

생하기가 힘들다. 생활 정서와 감정이 무뎌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의 생활과 심리를 리해할 수 없다. 설사 리해한다 하여도 그에 공감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무심할 수 있다.

일부 일'군들은 사실 본심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적 정서가 없음으로 하여 사람들을 무뚝뚝하게 대하고 또 《무정》한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것은 다정 다감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과 생활 정서적으로 어울리지 못 하고 그리 하여 다른 사람의 생활에 깊이 파고 들지 못 하며 생활 심리적 번뇌, 사상을 리해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정서적으로 대해 주는 사람을 인간미가 있다고 하며 반대로 인간미가 없는 사람을 감정 없는 《목석》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미에 대한 교양은 사람들에게 미적 정서를 풍부하게 하며 그들을 다정 다감하게 한다. 아름다운 것, 고상한 것, 슬기로운 것 등을 인식하는 과정은 정서와 사상을 풍부히 해 주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미적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인간성을 풍부히 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이다.

미적 의식은 인간에게 비단 그 어떤 부드러운 감정 정서를 주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계급적인 미관은 인간성을 철저한 당'적인, 계급적인 것으로 발현하게 한다. 인간성은 순수한 《인정》은 아니다. 인간성은 계급적인 것이다.

생활은 다양하며 인간 관계는 복잡하다. 다양한 생활, 복잡한 인간 관계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려면 반드시 로동 계급의 계급적인 의식과 함께 미적 의식이 있어야 한다.

로동 계급의 미관에 확고히 서지 못 하면 인간 생활에서 아름다운 것과 추악한 것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따라서 인정, 우의, 사랑이 계급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 그리 하여 인간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비계급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인심》을 쓰며 《동정》을 표하는 경향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계급적인 원칙이 없는 초계급적인 《인류애》는 혁명가와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이렇듯 미 의식은 인간성을 풍부히 하며 그것을 정확히 발현시키게 하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문화성과 미적 정서

일'군들의 문화성은 로동 계급의 미적 관점과 소양에 기초한다. 문화성이란 아름다운 것과 일맥 상통한다. 미적인 정서가 풍부하지 않고서는 결코 문화적인 수준과 소양을 높일 수 없다.

미 의식은 사람들에게 사업과 생활에서 미적인 것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줌으로써 결국 생활에서 어떤 것이 문화적인 것인가를 리해할 수 있게 한다.

미적 의식이 있을 때 사람들은 외모 단장에서, 언어 생활에서, 례의 범절에서 문화적인 것과 비문화적인 것,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잘 분간할 수 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생활이 유족해짐에 따라 문화적인 생활 양식을 요구한다. 례하면 옷차림에서 맑고 명랑한 것을 좋아 한다. 이것은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미관의 발현이다. 만일 일'군들이 현대적인 미관에 서지 못 하면 낡은 미감으로 하여 맑고 명랑한 옷차림을 마치 경박성, 소박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그릇 간주할 수도 있다. 녀성들의 소박한 옷차림은 마치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는 것이라고 간주하거나 무더운 여름철에도 긴 소매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낡은 관점이다. 이것은 현대적인 미감에 맞지 않는다.

과거 우리 인민은 빈곤하고 구차하게 살아 왔기 때문에 자기의 물질 생활 령역에서 높은 미적 요구를 제기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관에는 일정하게 착취 받는 인민의 우울하고 침침한 생활 처지와 환경이 반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유족해졌다. 현대적인 미감은 이러한 새 생활의 필수적 요구이다.

미적 의식은 생활에서 문화적인 것을 인식할 능력을 주는 동시에 생활을 《미의 법칙》에 맞게 즉 문화적으로 꾸릴 수 있는 심리적 충동과 능력을 준다. 문화적인 생활은 미적인 것을 생활에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이 풍부할 때만이 가능하다.

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선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리려는 지향도 나올 수 없다. 사람들의 문화성은 결코 어떤 외'적 강요로써는 높일 수 없다. 사람들의 생활 정서, 심리, 기호 등이 고상하고 문화적으로 되어야 생활도 문화적으로 꾸릴 수 있다.

미적 소양 여하에 따라 생활을 꾸리는 데서 그 문화성의 정도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같은 아빠트, 같은 생활 기구를 가지고도 방을 꾸리는 데서 미적 소양 여하에 따라 장식과 가구 배치, 정돈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라 그 방의 아늑감, 조화감 등이 다르게 된다. 아름다운 것을 구현할 능력과 소양이 풍부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릴 수 없는 것이다.

일'군들이 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생활을 알뜰하게 꾸리는 데 무능력할뿐만 아니라 부패한 자본주의 생활 양식을 뿌리 뽑을 수 없으며 특히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류포하고 있는 양풍을 반대하는 투쟁을 옳게 진행할 수 없다.

양풍은 부패한 부르죠아지들의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미 의식의 소산이며 결정체이다.

오늘 양풍은 자본주의 나라를 유령과도 같이 범람하고 있다. 쟈즈, 만보, 트위스트 따위의 색정적이고 추잡한 노래와 춤 그리고 강간, 살인, 강도질 등의 패덕 행위와 광란적인 오락은 모두 이러한 미관의 소산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이러한 양풍을 《현대적 류행》으로 선언하면서 그것을 사회주의 나라에 류포시킴으로써 건전한 로동 계급의 미관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양풍을 반대함에 있어서도 일'군들이 로동 계급의 미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와의 투쟁을 정확히, 철저히 진행할 수 있다. 로동 계급의 미관에 철저히 서지 못 하면 양풍의 추악성, 비도덕성을 리해하지 못 하고 《날날이 패》들이나 좋아 하는 괴이한 옷차림이나 렵기적이며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오락 등을 마치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그릇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로동 계급의 미관에 확고히 섬으로써만 이러한 양풍의

추악성, 비문화성을 정확히 리해하고 그를 철저히 증오하며 배격할 수 있다.

일'군들의 미적 정서는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리는 데서 뿐만 아니라 생산 문화를 높이는 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논다.

오늘 인민들은 제품에서 유용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적인 것 즉 제품의 쓸모와 함께 그의 색채, 모양, 형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돌린다. 그러므로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는 미에 대해서도 주의를 돌려야 하는 것이다.

례하면 건축물은 쓸모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와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건축물이 비단 일용적 요구만이 아니라 정신적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이 부문 일'군들의 미적 의식에 높은 요구를 제기한다. 일'군들의 미적 정서가 풍부할 때 건축물은 편리하고 쓸모 있게 되는 동시에 인민들의 혁명적인 지향과 랑만적인 정서를 반영하여 맑고 밝으며 선진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 건축물이 침침하고 다양하지 못 하거나 조화되지 못 할 때 그것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며 또 거리와 마을도 빛을 내지 못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경공업품 생산에서도 제기된다. 경공업품은 알뜰하고 깨끗해야 하며 간편하고 보기 좋아야 한다. 하나의 완구, 한 벌의 의복, 한 메터의 천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시대 인민의 미적 정서를 잘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의 미적인 의식과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미적 의식은 일'군들의 인간성, 문화성을 높이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논다. 풍부한 미적 정서—이것은 일'군들의 인간성, 문화성의 중요한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인간미 있고 문화적 소양이 높은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미를 감수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동 계급의 미관

미를 인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로동 계급의 미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객관 세계의 아름다움을 감수하는 견해는 인간에게 있어서 공통적인듯 하다. 그러나 미에 대한 인식, 관점은 계급에 따라 서로 다르다. 특히 로동 계급의 미관과 부르죠아지의 미관은 정반대된다.

로동 계급의 미관은 혁명적이고 전진적인 것이며 발전하는 미래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동 계급의 미관에 설 때만이 객관의 미를 가장 정확히 리해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생활에서 아름다운 것,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하루 바삐 건설하려는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이며 그의 창조물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정신 세계에는 참으로 고상한 로동 계급의 미관이 지배하고 있다. 당에 대한 충실성, 로동에 대한 적극성, 불요불굴의 투지, 소박성, 겸손성, 혁명적 락관성 등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미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이러한 정신적 미는 생활에서 밝고 명랑하며 전투적이고 랑만적인 데서 미적 정서를 찾고 있다. 근로자들의 이렇듯 고상한 미관은 우리의 생활에 대한 환희, 행복 그리고 우리의 혁명 위업에 대한 자부심과 승리의 신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착취 계급은 우울하고 침침하고 애수적이며 진부한 것에서 미를 찾는다. 그들의 미는 패륜과 부화 방탕이며 파괴와 안일 뿐이다.

부르죠아 사회에서 화폐는 미의 총체로 나타난다.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화폐(황금)만 있으면 못 난 사람도 잘 난 사람으로, 늙은이도 젊은이로, 저속한 사람도 일류 《유지 신사》로서 인정될 수 있으며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맑스는 화폐의 위조적 힘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 화폐가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의 미 의식을 지배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화폐의 힘이 큰 만큼, 그 만큼 나의 힘도 크다. 화폐의 제 속성은 나—화폐의 소유자인—의 속성이며 본질적인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코 나의 개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추남이지만 나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여성을 살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결코 추남이 아니다. 왜냐 하면 추잡하게 생겼다는 것의 작용, 그 징그러운 힘이 화폐에 의하여 소멸되였기 때문이다. 내가—그 개성 상으로는—절름발이라고 하자. 그러나 화폐는 나에게 24 개의 발을 제공해 주니 나는 결코 절름발이가 아니다. 나는 나쁜, 부정직한 비량심적인, 머리가 둔한 사람이나 화폐는 존경을 받으며 따라서 화폐의 소유자도 존경을 받는다. 화폐—그것은 최고의 선이니 따라서 화폐의 소유자도 선량하다.》(맑스, 엥겔스 《예술론》 65 페지)

부르죠아의 이러한 미적 정서는 그들 자신의 숙명적인 운명에 대한 비관, 애수, 우울증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본가 계급은 사회의 낡은 견지에 서 있기 때문에 생활의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것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 없다. 로동 계급의 미적 정서와 부르죠아의 미적 견해는 그 내용이 판연히 다르다. 우리 일'군들은 미를 리해함에 있어서 확고한 맑스-레닌주의 미관, 로동 계급의 미관으로 무장해야 한다. 로동 계급의 미관에 설 때만이 생활에서 발현되는 진정한 미를 감수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미관만이 생활에서 유익한 것으로 될 수 있다. 특히 인간성, 문화성은 미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로동 계급의 미관은 그의 인간성, 문화성을 높이는 데서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된다.

미에 대한 교양 방도

미 교양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려면 그 교양 방도를 정확히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 교양에서 중요한 방도는 감화의 방법이다. 미에 대한 교양은 구체적 정서와 감정의 교양으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생활적인 것, 정서적인 것을 통해서 교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름다운 인간을 보며 예술 작품이나 영웅 실기에서 미적인 것을 자기 자신이 몸소 체험하고 감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미적 정서를 높일 수 있다. 미적 교양에서 예술 교양은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형식이다. 예술은 생

활의 미를 반영하며 생활의 미를 구현하는 가장 높은 형태이다. 오늘 우리 예술은 우리 생활의 미를 반영하며 인민들과 일'군들에게 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훌륭한 리상을 실현하며 그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한다.

지금 우리 나라 예술은 우리 시대 인간의 정신적 미를 가장 완전하게 체현한 천리마 기수들과 우리 인민을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시키고 조국을 광복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항일 투사의 형상을 창조하는 데 정력하고 있다. 우리의 문예 작품들은 감상자들에게 높은 미의 리상과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교양함으로써 거대한 미교양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 속에서 예술 교양을 강화하며 예술 작품을 일상적으로 읽으며,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 못 견디도록 하며 그 속에서 참된 생활을 발견하고 사업의 산 동무를 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항일 투사들의 생활을 반영한 회상기, 소설 등을 광범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항일 투사들은 높은 공산주의적 인간성, 문화성을 체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적들은 높은 감화력을 가지고 일'군들의 인간성, 문화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일'군들의 미적 정서를 높이는 투쟁은 아름다운 것을 감수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직접 미적인 것을 창조하는 실천에 들어 서서 자기 생활을 《미의 법칙》에 맞게 꾸리는 습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생활을 미적으로 꾸리는 투쟁은 전 당'적, 전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이 사업에 솔선 모범이 되여야 한다.

또한 로동 계급의 미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미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적인 생활 정서는 미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깊이 체득할 때 보다 과학적이고 심오해질 수 있다.

모든 일'군들이 로동 계급의 미관으로 무장하고 《미적 법칙》에 맞게 행동하고 사업할 때 그의 인간성, 문화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제국주의 대내외 정책에서의 《반공산주의》

현 준

인류의 찬란한 미래를 체현한 공산주의는 세상에 출현한 순간부터 새것을 겁내며 진보를 가로막으려는 부르죠아지를 포함한 모든 반동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100여 년 전 맑스와 엥겔스는 자기의 유명한 저서 《공산당 선언》의 서두에서 《하나의 유령이 구라파를 어슬렁거린다—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낡은 구라파의 모든 세력들 즉 법왕과 짜리, 메테르니히와 기조, 불란서의 급진파와 독일의 경찰이 이 유령의 성스러운 토벌을 위하여 련합되였다.

반정부당 치고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적들로부터 공산당이라는 비방을 받지 않는 당이 있는가?》라고 썼다.

공산주의는 인류 력사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상으로서 로동 계급과 수억만 근로 대중의 리해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낡은 세력과 낡은 사회의 부패와 악페를 반대하며 매장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과학적 리론으로부터 력사상 처음으로 현실적인 사회 구성태로 출현하였을 때 《반공》은 공산주의 리론을 반대하는 수단만으로써가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와 그 실천을 반대하는, 부패해 가며 자기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보고 있는 제국주의의 주되는 사상 정치적 무기로, 부르죠아 정부의 대내외 정책으로 전변되였다.

제국주의의 선전치고 어느 하나가 《반공》의 무기고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있는가!?

공산주의를 로골적으로 반대하는 모든 맑스-레닌주의의 적들과 반동적 《리론가》들은 물론 우익 사회주의자들까지 《반공》 전선에 규합되였다.

공산주의 사상과 그 실천의 위대한 힘과 견인력에 질겁한 제국주의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산주의를 《지옥》으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악마》로 묘사하면서 자기들을 사회주의와 모든 진보적 력량의 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그들은 《반공》의 방패를 내걸고 자국 내에서 진보적 사상과 력량을 파쑈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공산주의 위협》, 《공산주의 침략》을 운운하면서 타국에 대한 간섭과 침략을 감행하고 있으며 침략적인 전쟁 준비를 공공연히 강화하고 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 소동은 그들의 패배와 위기를 반영할 따름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반공》 소동으로써도 그들이 직면한 위기를 수습할 수 없으며 사회적 진보를 대표하며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사활적인 리해 관계를 반영하는 공산주의 사상의 승리를 가로 막을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위기 의식

《반공》은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적인 전진 앞에서의 제국주의 반동들의 멸망과 절망적인 위기를 반영하는 사상적 및 정치적 현상이다.

부르죠아지가 중세기적 암흑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진보의 기치를 들고 진출하던 시기는 영원한 과거로 되였으며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러 부르죠아지는 인류에게 유익한 그 어떠한 가치물도 창조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자본주의가 사회 발전의 질곡으로 되고 수억만 사람들의 심장을 사로잡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그 어떤 진보적인 것도 대치시킬 수 없게 되였을 때 부르죠아 반동들은 자본주의의 지반에 위험을 느끼면서 자기의 여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데 련합되였다.

새로운 것, 진보적인 것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위조,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중상 비방, 공산주의의 실천에 대한 훼손 등이 오늘 《반공》의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맑스-레닌주의가 백전 백승의 위대한 힘으로써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전취하고 사회주의의 위력이 비할 바 없이 증대됨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의 《반공》 책동은 더욱더 악랄해졌으며 그 형태와 수법도 보다 음흉하고 교활하여졌다. 현대 《반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을 반대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과 그 성과를 훼손하려고 발악한다는 데 있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산아인 첫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의 련쇄를 끊고 로씨야에서 처음으로 출현하였을 때 제국주의 반동들은 청소한 사회주의 국가를 그 요람에서 《교살》하기 위하여 날뛰였으며 공공연히 무력 간섭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없으며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경제적 원칙》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중첩되는 난관들로 하여 조만간에 붕괴되고야 말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 나 세계적 체계로 형성되고 그 정치 경제적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여 더는 사회주의를 무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회주의의 《붕괴》를 운운하는 《예언자》들은 더욱 교묘한 수단에 매여 달리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는 빵은 줄 수 있으나 자유》는 줄 수 없다고 비방하면서 《자유》, 《개성》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기 시작하고 있다.

공산주의 하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란 없으며 오직 강제와 폭압과 복종만이 있다고 독설을 퍼부음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강력한 무기이며 맑스-레닌주의의 진수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자유》, 《개성》 등에 대한 구호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 깜빠니야에서 마지막 《지탱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 선전자들이 말하는 《자유》 구호는 독점 자본의 착취와 특권을 유지하며 근로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유》는 자본가들에게는 황금의 자유이며 근로 대중에게는 기아와 빈궁, 실업의 《자유》이며 육체적 및 정신적 불구의 《자유》이다.

《반공》 선전의 무분별성과 자본주의를 미화하는 어용 《리론》의 결합은 제국주의 선전의 교활성을 보여 주는 다른 하나의 측면이다.

제국주의 독점 자본은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공산주의 실천에 대한 맹목적인 비방과 중상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온갖 반동 《리론가》들을 동원하여 각종 사이비 과학을 만들어 낸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의 《분산》과 자본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입의 균등화》가 실시되고 로동자와 자본가 간의 계급적 모순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본주의가 이미 그 본성을 변경한듯이 설교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나라들에 광범히 류포되고 있는 《인민적 자본주의》, 《전민 복리 국가》 등은 그 실례이다.

이것이 터무니 없는 황당한 거짓이라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오늘 독점 자본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서 날이 갈수록 빈부의 차이는 더욱더 격심해지고 있고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이 기아와 빈궁, 무권리의 처지에 있다.

부르죠아 반동들이 그처럼 필사적으로 《반공》에 매달리고 있는 리유는 무엇보다도 현시기 자본주의 세계가 처하고 있는 심각한 전반적 위기와 관련되여 있다. 자본주의는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 모든 령역에서 인류의 미래인 공산주의에 아무런 긍정적인 것도 대치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멸망의 운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반동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반공》은 파쑈화와 침략을 위한 도구

《반공》은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일뿐만 아니라 독점 자본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대내외 정책을 이루고 있다. 제국주의 지배층들은 《반공》 구호 밑에 로동 계급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말살한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는 자기의 모든 로선에 있어서 반동이다.

《반공》이 맑스-레닌주의 학설과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자들만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지에 있어서 《반공》은 모든 진보적 사상과 력량을 반대하며 나라를 파쑈화하기 위한 반동적 무기로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나라라고 떠드는 미국에서 오늘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제 2 차 대전 이후 년간에만 하여도 미국 지배층들은 파쑈화 정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에서 수차에 걸쳐 《반공》, 반민주주의 깜빠니야를 일으켰다.

그들은 1947~1949년에 한편으로는 《랭전》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국내에서 민주주의적 인사들을 다량 심문하였으며 공산당과 로조를 반대하는 《타프트-하틀리법》을 조작하였다. 이리 하여 미국에는 삼엄한 파쑈 테로의 분위기가 조성되였고 수 많은 애국자들이 체포 구금되였다.

특히 조선 전쟁 시기 미국 국내에서 《반공》, 반민주주의 깜빠니야는 극도에 달하였다. 공산당원들과 광범한 애국 력량을 탄압하기 위한 《맥카란법》, 《공산당 관제법》 등 일련의 악법들이 조작되였다.

《맥카란 법》은 한 때 히틀러가 사용하던 수법을 미국에 적용하여 만들어 낸 것인데 그것은 공산당 원들에게 《외국의 앞잡이》로서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맥카란 법》의 규정 대로 《등

록》하지 않을 때는 엄벌을 받으며 등록 기한이 지난 매 1일에 대하여 1만 딸라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밖에도 《스미스 법》 등 많은 파쑈적 악법들이 조작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에는 《존 버치 협회》 등 1,000여 개의 파쑈 단체들이 미국 력사에서 전례 없는 파쑈적 테로 행위로 미국 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바 이것은 과거 히틀러 독일을 릉가하고 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 하에 있는 남조선에서도 《반공》의 구호 밑에 전례 없는 파쑈적 탄압이 감행되고 있다. 남조선 괴뢰들은 《반공》을 《국시 제 1》로 선포하고 온갖 민주주의적, 애국적 인사들과 청년 학생들을 체포 투옥하며 인민들의 사소한 민주주의적 권리마저 말살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남부 월남에서 괴뢰들을 사촉하여 민주주의적 경향을 가진 모든 량심적인 사람들을 《공산주의 분자》라는 《죄명》을 씌워 무참히 학살하고 있으며 살벌한 파쑈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반공》은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빼앗으며 나라의 파쑈화를 초래하는 민족적 불행의 화근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타국에 대한 침략과 전쟁,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의 탄압을 위한 상투적인 도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 계획을 은폐하며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침략》, 《공산주의 위협》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온다.

과거 일본, 독일, 이태리가 바로 그런 구호 밑에 타국을 침략하였고 나중에는 세계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 온 제 2 차 대전을 도발하였다가 멸망하였으며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또한 력사의 전철을 밟고 있다.

세계 제패를 야망하여 나선 미제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니, 《파괴 활동》이니, 《자유 세계의 수호》니 하는 구호 하에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탄압하고 그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식민지 전쟁을 도발하고 있으며 군비 경쟁과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반공》은 제국주의 나라들의 대외 정책으로 되고 있는바 그 기본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침략적 《반공》 쁠럭을 조작하며 타국 령토 상에 침략적 군사 기지를 형성하며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 《반공》 세력을 부식하여 친제국주의적 괴뢰들을 조작하며 애국 력량을 말살하는 것이다.

미제는 침략을 감행하는 나라들, 그리고 반동적인 추종 국가들과 《반공》을 호상 관계의 기초로 강요하면서 각종 침략적 군사 협정과 《반공》을 위한 《원조》 정책을 추진시키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제는 《자유 세계를 수호》한다는 구실 밑에 세계 도처에 900 개 이상의 침략적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100만 이상의 미군을 해외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수 많은 현지 고용병들을 양성하고 있다. 미제는 또한 일방으로는 나토, 쎈토, 세아토, 안쥬스 등과 같은 침략적 군사 동맹을 조작하고 타방으로는 추종 국가들과 쌍무적인 군사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지역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기본 대외 정책을 설명하면서 털스크는 《우리 대외 정책의 기본 목적은 우리 군사력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의 복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데 즉 자유 세계를 수호하는 데 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5 개의 기본 정치 방침을 세웠는바 그 중 첫째는 미국과 〈자유 세계〉의 전반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 세계의 수호》니, 《국방력 강화》니 하는 것이 대외 침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정치적 분야에서 미제는 《반공》의 방패를 내걸고 《미국식 생활 양식》을 침투시키며 친미 세력을 부식하여 괴뢰들을 내세움으로써 식민지 지반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 침투하고 있는 《평화군》, 각종 사절단, 외교 대표부들이 바로 그 초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브라질에서 감행된 군사 정변은 바로 그 실례의 하나이다.

경제 분야에서 미제는 각종 《원조》 정책을 내걸고 괴뢰들을 예속시키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은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방대한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그 나라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민족적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미국식 문화와 《미국식 생활 양식》은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넋을 침식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되고 있다.

《반공》의 중심은 미국이다

미국 전 대통령 케네디는 집권하자 《반공》을 념두에 두면서 《우리는 많은 면에서 전쟁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투쟁 령역에서 자기의 노력을 적극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반공》은 미국의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 미제는 국내에서 발광적인 《반공》 선전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에서 《반공》 선전의 사상, 정치적 및 재정적 중심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 미 제국주의가 세계 반동의 지주이며 침략의 원흉으로 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국 내에는 물론 세계에 광범한 《반공》 선전 기지망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들은 례외 없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며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 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데 복무하고 있다.

미국이 국외에서의 《반공》 선전에 매년 5억 딸라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선전 기관들의 활동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가 하는 것을 말하여 준다.

현재 미국의 《반공》 선전 기관 체계에서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미국 대외 공보원인데 거기에서는 1만 1,000여 명의 선전 일'군들이 일하고 있다.

이 공보원은 무려 94 개국에 230여 개의 보도·중심들과 111 개의 지방적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최근 2~3 년간에 그에 대한 지출은 50% 장성하여 1억 5천만 딸라를 초과하고 있다. 미국 대외 공보원은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외곡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중상 비방하는 《반공》 사상으로 일관된 잡지 57 종과 신문 22 종을 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적

지 않은 나라들에서 매수된 친미 분자들을 리용하여 간접적으로 출판물들을 발행하고 있다.

출판물 외에 라지오 방송은 공보원이 리용하는 수단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미국 국내에 있는 30 개의 방송국과 국외의 57 개 방송국을 포함한 《미국의 소리》는 일 주야 동안 계속 《반공》과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불어 대고 있다.

그 밖에 많은 비국가적 《반공》 선전 기관들이 있는바 그것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한 그물의 매듭들이다.

이러한 조직들로서는 《자유 구라파 위원회》(1949년, 뉴욕), 《문화 자유 회의》(1950년, 베를린), 《볼쉐위즘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미주 위원회》(1951.년), 《아세아 반공 련맹》(1954년, 서울, 현재 사이공), 《미주 대륙 련맹》, 《도덕적 재무장》 운동 등이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이 조직들은 대부분이 조선 전쟁을 전후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묻지 않아도 명백하다.

실례로 그 중에서 《자유 구라파 위원회》는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계획적인 파괴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호전 계층들인 아이젠하워, 알렌 덜레스, 이전의 미국 정탐 두목 도노벤과 같은 자들이 조종하였거나 조종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산하에는 5 개의 방송국이 있으며 거기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도망한 자들의 대부대가 망라되여 있다.

《문화 자유 회의》는 전문적으로 인테리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반공》 조직으로서 21 개국에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개성의 자유》 등 기치 밑에 계획적으로 사회주의 나라들을 비방 중상하는 깜빠니야를 전개하고 있으며 일련의 나라들에서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가장 교활한 방법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널리 침투하고 있는 《도덕적 재무장》 운동은 현재 22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도덕적 재무장》 운동은 《민족들 간, 사람들 간, 인종들 간 및 계급들 간의 협조》를 설교하는 종교 단체의 간판 밑에 활동하고 있다.

이 조직은 방대한 부수의 출판물을 발행하여 무료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백만 장자가 가난한 사람의 구두를 닦아 주며 백인이 흑인을 도와 주며 서로 협조하는 것과 같은 장면을 보여 주는 영화나 기타 예술적 수단을 널리 리용함으로써 인민들의 계급적 의식을 거세하려 하고 있다.

이 모든 《반공》 단체들은 례외 없이 모두 미국 독점 자본에 의하여 조직되였으며 미국에서 조종하고 있다. 누가 그들에게 자금을 대주는가?

다름 아닌 바로 록펠러, 포드, 듀폰 등 대독점 재벌들이다. 례로 《자유 구라파 위원회》에는 록펠러, 《문화 자유 회의》에는 포드, 《도덕적 재무장》 운동에는 포드, 미국 금융 자본가이며 신문 발행인인 허스트, 미국 고무왕 파이어스토운 등이 중요한 자금 조달자로 되고 있다.

이 사실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반공》 선전 조직들은 독점 자본의 직할 선전실로 되여 있으며 《반공》 분자들과 백만 장자들과의 완전한 사적 결탁이 이루어 지고 있다.

* *

현재 대규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공》 소동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더욱더 심각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절망감이 극도에 달하였으며 제국주의의 지반이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공》은 그것이 진보적 사상과 력량을 반대하며 근로 대중의 사활적 리해관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 《반공》은 반동적이며 범죄적인 조류이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제거》하려고 발악하였으나 그 모두가 멸망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나치스 히틀러가 그러했고 무쏘리니가 그러했고 일본 제국주의 두목 도죠가 그러했다. 미제의 졸개 장 개석, 리 승만 등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였다.

제국주의 제도는 조만간에 붕괴되고야 말 운명에 있으며 인류의 미래를 체현한 공산주의 건물은 전 세계에서 더욱더 찬란한 빛을 뿌릴 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

최 호 경

오늘 남조선의 정치-군사 정세는 미제의 식민지 군사 기지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제는 이른바 《공산주의 위협》이니, 《자유 세계 방위》니 하는 간판 밑에 남조선을 하나의 큰 병영으로, 침략의 전초 기지로 전변시키고 있다.

그들은 태평양 미 륙군의 기본 주력을 남조선에 배치하고 괴뢰들을 통하여 고용 군대를 증강하는 한편 각종 신형 무기를 반입하며 지어는 원자 및 유도탄까지 끌어 들이고 있다.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이러한 군사 기지화 정책은 남조선 인민에게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음은 물론 그것은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극동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된다.

그러므로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 기지화 정책을 폭로하는 것은 인민들을 반미 투쟁에 궐기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1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군사 기지화 정책—이것은 남조선을 침략하며 그것을 극동 침략의 견고한 요새로 만들기 위한 미제의 침략 책동의 산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년간 미제는 저들의 세계 제패 계획 실현의 일환으로서 대외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집중하면서 이에 상응하게 대극동 침략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극동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침략적인 집단 안전 체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반대하는 포위망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를 봉쇄하며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 말살함으로써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적 공동체》를 수립하려는 미제의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미제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을 저들의 침략적인 군사 기지로 전변시킴으로써 그것을 공화국 북반부와 나아가서는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의 요새로, 그의 공고한 기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기간 미제가 도발한 3년간의 조선 전쟁이 웅변으로 실증하여 주고 있다.

미제는 이 전쟁을 북반부에 대한 강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세아 전역에 파급시킬 것을 시도하였다.

지난 조선 전쟁에 참가하였던 맥아더는 자기들의 음흉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 놓았다.

《나의 계획으로서는 첫째 한국전을 한국 내에만 국한시켜서는 승리를 할 수 없으니 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만주를 폭격하고 중공을 봉쇄하는 한편 국부군의 본토 상륙전을 감행하여 장 개석씨로 하여금 북경을 차지하게 해야 한다…나의 계획은 실행만 했으면 반드시 성공했을 것이며 그렇게 됐으면 극동 뿐만 아니라 세계 력사까지도 달라졌을 것이다.》

미제가 저들의 침략 정책에서 남조선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침략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남조선은 미제의 전략적 견지에서 볼 때 아세아 대륙의 일각으로서 중국, 쏘련 등과 린접하고 있으며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발발한 경우에 일본, 대만, 비률빈 등의 군사 기지로부터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미제가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이 남조선에 가까운 거리에 있다.

미제는 일본에서 군국주의자들을 부추겨 30여만의 복수주의 군대를 재생시켰으며 수다한 원자 및 유도탄 기지들과 군사 시설을 일본에 건설하였다.

이 밖에도 남조선의 후방에는 미제의 완전한 원자 기지로 화한 오끼나와를 비롯하여 대만, 비률빈 등과 그의 태평양 제 7 함대가 있다.

미제는 조선에서 도발하는 자기들의 침략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지들로부터 각종 신형 무기로 장비한 20여만의 미 침략군과 100여만의 미 고용 군대의 지원을 받을 것을 타산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조건으로 하여 남조선이 아세아의 어느 도서나 지점 보다도 가장 좋은 군사 전략적 요충 지대로 될 수 있다고 간주하면서 이를 저들의 침략적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책동하여 왔다.

미국 지배층들은 남조선이 《제 1 급의 전략적 지역》이며 《아세아적 교두보》라고 그의 속심을 드러내 놓고 있다.

남조선을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조선과 극동 침략을 실현하려는 동시에 파국에 처한 남조선과 기타 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지배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와 강점 정책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타산하기 때문이다.

오늘 세계 도처에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이 세차게 일어 나고 있는 조건하에서 날로 강화되는 사회주의 진영과 멸망하여 가는 제국주의 진영 간의 모순의 접촉점에 위치하고 있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의 파탄은 이여의 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그의 강점과 지배를 더욱 위협하는 불씨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군사 기지화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은 물론 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은 바로 이상과 같은 침략과 략탈의 범죄적 목적을 위하여 감행되고 있는바 이 정책에 의하여 조선에서 긴장 상태는 더욱 격화되고 있다.

2

미제가 남조선에서 실시하는 군사 기지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그 곳을 상용 무기에 의한 《국부 전쟁》이거나, 핵 무기에 의한 《전면 전쟁》이거나를 막론하고 다 수행할 수 있는 다각적으로 구비된 군사 기지 창설이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아세아의 어느 지역보다도 제일 많은 미군 병력을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유엔군 사령부》까지 설치하고 있으며 남조선 괴뢰들로 하여금 60여만의 방대한 상비군을 유지케 함으로써 자기의 침략군의 보충물로 만들고 있다.

미군과 괴뢰군 병력의 90% 이상은 륙군이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을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하며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국부 전쟁》의 요새로 만들려는 시도와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 기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방대한 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각종 신형 무기들을 끌어 들여 미군의 장비를 강화하고 군사 기지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남조선을 완전한 원자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일부 사단들을 원자 사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280미리 원자포, 《오네스트죤》, 《타크로스》 등 각종 원자 및 유도 무기들을 반입하고 그 기지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강원도와 경기도의 전연 지대를 비롯하여 후방의 각처에 원자 및 유도 무기 발사 기지, 저장고, 수리 기지, 훈련장 등이 건설되였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 괴뢰군을 각종 신형 무기로 장비시키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구식 비행기 밖에 없던 괴뢰 공군에는 에프 100 초음속 전투기를 비롯하여 각종 신형 비행기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싸인도 와인더》와 같은 유도 무기로써 장비시키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경비 임무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괴뢰 해군에 구축함, 잠수함 등의 각종 공격 무기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을 《국부 전쟁》, 《전면 전쟁》의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괴뢰군에 대한 지배와 예속이다.

미제는 합법적으로 괴뢰군의 통수권을 장악하고 그의 자주성을 말살하고 있다.

그들은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1950년 7월 리 승만 역도와 미군 사령관 간에 교환된 간단한 편지를 통하여 손쉽게 장악하였으며 전후 이것을 《한 미 호상 방위 조약》, 《한 미 협약》 등의 일련의 군사 《조약》과 《협정》으로 더욱 《합법화》하고 재확인하였다.

미제는 괴뢰 국방부로부터 군 사령부, 군단, 사단, 해 공군 부대들과 각종 군사 학교에 이르기까지 미군 군사 고문들을 배치하고 괴뢰군의 일거 일동을 통제 장악하고 있다.

미 군사 고문들은 괴뢰군 장교들에게 지시와 명령을 하달하며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괴뢰군의 부대 편성과 장비, 훈련으로부터 장병들의 부식비, 지어 휴가 문제에 이르기까지 통제 간섭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 괴뢰군을 더욱 철저히 예속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후방 공급까지 군사 《원조》로써 얽매여 놓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는 이미 1945년 9월부터 실시되였으며 괴뢰군의 각종 장비들과 군수품들의 대부분이 그에 의존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괴뢰 정권의 전 《주미 대사》란 자까지도 《현재 미국은 우리의 모든 무기를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쓸 모든 휘발유를 장악하고 있으며 2일 간 사용할 분량만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 누구나 이런 방식에서는 크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실토하였다.

미군은 남조선에서 괴뢰 도당들로부터 치외 법권까지 보장 받고 있다.

그들은 인민들에 대한 략탈과 살인 등의 비인간적 만행을 거리낌 없이 감행하여도 아무러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쟁과 군사 건설에 필요한 시설과 로력을 마음 대로 략탈할 수 있는 무제한한 《특권》을 괴뢰 도당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 괴뢰들의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한 미제는 이미 49 개 나라들과 체결한 형식적인 《행정 협정》마저도 남조선 괴뢰 도당과는 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 기지화 정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남조선의 괴뢰들을 극동의 기타 괴뢰들과 더욱 밀접한 군사적 관계로 련결시키려는 음모이다.

그들은 괴뢰들로 하여금 일본 군국주의자들까지 남조선에 끌어 들이게 하여 그들 간의 군사적 결탁을 강화케 하려 하고 있다.

미제에 의하여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자들도 《한국의 안전과 일본의 안전과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느니, 《38선은 일본의 생명선》이라느니 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적극화하고 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의 일부분을 담당하여 나서고 있다.

그들은 미제의 조종 하에 남조선 군대의 함선과 비행기 등 중요 장비들을 수리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크를 비롯한 각종 무기들과 연료, 탄약 등 각종 전략 물자들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조선 전쟁 시기에는 8,000여 명의 자기들의 군대를 남조선에 파견하여 참전케 하였다.

이것은 미제의 적극적인 조정에 의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 도당 간에는 이미 군사적으로 깊이 결탁되여 있다는 것을 실증한다.

군사 기지화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제는 남조선 전역을 군사적 폭압망으로 뒤덮고 있다.

미제는 인민 탄압을 주되는 임무로 삼는 괴뢰 《제 2 군 사령부》 관하 부대들과 《수도 경비 사령부》 관하 부대들을 남조선 전역에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첩대》, 《범죄 수사대》, 헌병 등 수 많은 군수사 정보 기관들을 주민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공화국 북반부와 나아가서는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정탐 행위의 교란 작전을 위하여 도처에 수다한 첩보 모략 기지들을 설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자기들의 침략적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3

미제의 식민지 군사 기지화 정책은 남조선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아세아의 평화를 위한 인민의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다.

미제는 막대한 군사비의 중하를 남조선 인민들에게 걸머지우고 있다.

1964년도 괴뢰 정부 국방비는 1953년에 비하여 근 7 배나 증대된 227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120만의 취업 로동자들에게 반 년 이상 지불할 수 있는 봉급액에 해당되며 남조선 전력 공업, 연료 공업, 금속 공업, 기계 공업, 광석 채굴업의 2,000여 개 기업소의 년간 총생산액에 가깝다.

이 방대한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미제와 괴뢰 도당은 해마다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를 전면적으로 군사화함으로써 민족 경제를 여지없이 파괴하고 있다.

이리 하여 오늘 남조선 공업 및 농업 생산은 일제 시기보다도 3 분의 2로 떨어졌으며 이것마저도 군사적 부속물로 전환되고 있다.

군사적 목적에 직접적으로 복종되여 있는 부문은 전력, 석탄 생산에서만도 25~30%에 달하고 있으며 운수는 40% 이상이 종속되여 있다.

이와 함께 미제는 남조선 도처에 《총포 재생창》, 《차량 재생창》, 《통신 기재 재생창》, 《항공기 수리 공장》, 《함선 수리 공장》 등 대 소 군수 공장들을 적지 않게 건설하였으며 400여 개의 민간 기업소들을 군납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복종시키고 있다.

미제는 아직도 조선은 《전시 상태》에

있다는 구실 하에 인민들의 토지, 건물, 마필 등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략탈하고 있다.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은 남조선 농업에도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비행장, 훈련장 등 군사 기지들을 건설하기 위하여 략탈한 농토는 10만 정보에 달하고 있다.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막대한 로력적 부담을 가져다 주고 있다.

오늘 미제는 남조선에서 60여만에 달하는 비생산적인 기생적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매년 1만 7,000여 개에 37만 7,000여 명의 종업원을 가진 현 남조선 공업 기업소를 움직일 수 있는 방대한 수'자이다.

군사 기지화 정책으로 인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강요 당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고통과 피해의 하나는 미군 야수들에 의한 인명 피해이다.

인간 증오, 민족 차별 사상으로 교육된 미 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집단적 또는 개별적으로 각종 악랄한 방법을 다하여 조선 인민을 학살한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이 남조선 인민에게 실로 크고 엄중한 재난을 가져다 주는 근원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이 조선 인민들로부터 반대 배격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미제에 대한 원한과 불만은 급속히 반미 운동으로 전환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박 정희의 매국 배족 행위를 폭로 배격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한 일 회담》을 타결함으로써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고 전쟁 준비를 더욱 강화하려던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군사 기지화 정책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에 대한 요구와 밀접히 결부되여 가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조국 통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국 배족 행위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박 정희 도당을 규탄하면서 《〈남북한〉이란 말이 소멸되고 부산서 신의주까지 육친의 정을 통하여 살 수 있는》 조국 통일이 하루 속히 실현되여야 한다고 더욱 절규하고 있다.

지금 미제와 그 주구 박 정희 도당은 날로 높아 가고 있는 인민들의 거센 투쟁 앞에 떨고 있다.

승리는 싸우는 인민의 편에 있다.

조선 인민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문답 학습

기계 공학에 대하여

기계 공학이란 기계의 설계, 제작 및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술 리론 및 계산의 기초를 주는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술 혁명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계, 설비들을 더 좋게, 더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을 잘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으로는 설계에 엄격히 립각하여 정확히 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작된 기계, 설비들을 생산에서 보다 능률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기계, 설비들의 설계, 제작 및 운영 과정에서는 허다한 기술 리론과 계산 문제들이 제기된다.

기계 공학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술 및 계산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핵심인 기계 제작 공업을 창설함과 함께 기계 공학 발전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으며 이 분야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 뜨락또르를 비롯한 대형 기계, 정밀 기계들이 우리 나라 자체의 힘으로 설계, 제작되며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된 대규모 공업 기업소들이 훌륭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에 대하여 잘 말해 준다.

우리가 이미 꾸려진 기계 공업의 토대를 잘 리용하기만 한다면 어떤 기계든지 다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였다.

기계 제작 공업과 기계 공학 분야에서 이와 같이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으나 발전하는 현실은 기계 공학을 보다 심오히 연구하고 그것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중요하게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이 보다 심화된 것과 관련된다.

이미 기계 공업의 토대가 상당한 정도로 꾸려졌을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이 심화되고 보다 전면화된 우리 나라의 현 조건하에서 기계 공학에 대한 보다 심오한 연구와 그 급속한 발전은 완전히 성숙된 요구로 나서게 되였다.

기술 혁명에서 제기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계 공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계 공학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인민 경제 발전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기술 혁명을 추진시킬 수 없다.… 결국 모든 것이 기계에 걸려 있다.》(《기술 혁명 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

들의 임무» 22 페지)

우리 나라 기술 혁명 촉진에서 기계 공학이 가지는 의의는 우선 그것이 기계, 설비들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개별적 부문들의 특성에 맞게, 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기계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투쟁에서 가장 힘있는 무기로 복무한다. 그것은 반드시 정복되는 대상의 특성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한다. 례하면 농기계는 우리 나라의 풍토 조건에 부합되게 만들어야 하며 광산 기계, 설비들은 우리 나라 광산의 지질 조건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술 혁명의 목적, 기계를 생산에 도입하는 목적이 어데까지나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로동 생산 능률을 높여 더 많은 재부를 만들어 내는 데 있는 만큼 기계, 설비들은 생산성이 높고 견고하며 다루기 편리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자연 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성능이 높고 견고하며 다루기 편리한 기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계의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제기되는 기계 공학적인 제 문제들이 해결되여야 한다.

우선 설계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는 기계 생산의 첫 공정이다.

설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것은 질 좋은 기계를 생산해 내느냐 못 해 내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이다.

만약 설계가 조잡하고 정확한 계산에 기초하여 작성되지 못 한다면 그러한 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기계, 설비들은 투박하고 겉모양이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특성에 잘 맞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계, 설비들로 꾸려지는 공장이 운영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결함을 나타내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설계의 운동 계통도 작성 단계에서 기계, 설비의 총체적인 형태와 작용 체계를 인민 경제 매개 부문들의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도, 소재의 선정 단계에서 우리 나라에 풍부한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하며 합당한 규격과 강도를 규정하기 위해서도 력학, 금속 공학 등을 비롯한 기계 공학적인 제 문제들이 정확히 해결되여야 한다.

기계의 제작 과정에서는 설계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며 가장 쉽고도 경제적인 제작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잘 해결함으로써만 만들어지는 기계, 설비들의 질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기술 혁명 촉진에서 기계 공학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그것이 이미 꾸려진 기술적 토대와 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기계, 설비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설비, 자재, 자금이 일정하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기계, 설비 생산 증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어진 능력과 조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또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얼마나 충분히 동원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설계에서 허식과 랑비의 요소들을 제거하며 이미 생산되고 있는 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확대하고 그 리용에서 실수률을 제고하며 기계, 설비들의 중량을 감소하는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계, 설비의 생산에 투하되는 로동과 자재, 자금을 절약하여 기계, 설비의 원가를 낮추게 함으로써 보다 적은 지출로 보다 많은 기계, 설비들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문제는 성능도 높이면서 지출은 감소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설계에서 허식과 일체 랑비의 요소들을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계에서 줄을 하나 잘못 긋거나 점을 하나 잘못 찍는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자재와 자금, 로력이 랑비되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너무도 명백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규격 강재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 리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력학적 계산 문제들이 정확히 해결되여야 한다.

특히 기계, 설비의 중량을 감소하고 원가를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대용 자재와 원료들을 광범히 리용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지금 기계, 기관실의 덮개를 강판 대신에 알루미니움이나 특수한 합성품 또는 가소물로 만드는 문제라든가 기계, 설비들의 일부 부속품 생산에서 대용 원료와 자재를 리용하는 것은 현실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자면 화학과 함께 기계 공학 리론과 계산 문제들이 해결되여야 한다.

요컨대 인민 경제의 기계, 설비에 대한 량적 및 질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서 기계 공학은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기계 공학이 발전함으로써만,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 기계 공학적인 제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됨으로써만 기계, 설비들을 투박하게, 우리 나라 실정에 부합되지 않게 만드는 현상을 극복하고 간편하여 다루기 쉽고 견고하며 성능이 높고 값이 눅게 대량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다.

질이 높고 값이 눅은 기계, 설비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해 내는 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가장 절실한 요구로 된다.

지금 당은 무엇보다도 있는 설비, 자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 리용하여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생활 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우려고 한다.

당의 이와 같은 의도를 정확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기계 공학을 전면적 기술 혁명의 현실적 요구에 적응하게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기계, 설비 생산에서 자재 소비 기준을 저하시키고 로력을 절약하는 동시에 생산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는 것이다.

기계 공학이 우리 나라 기술 혁명 촉진에서 가지는 의의는 마지막으로 그것이 생산된 기계, 설비들의 리용률과 공업 기업소들의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최신 기계, 설비들은 보다 복잡한 과

382 17

10

학 기술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며,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는 바로 이러한 기계, 설비들의 체계의 종합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계, 설비들을 훌륭히 다루고 그에 대한 점검 보수 사업을 질적으로 보장하며 공장, 기업소의 관리 운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로동자들과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기계, 설비의 구체적인 작용 원리와 매개 부속품 및 부분품들의 기계 공학적인 제 특징들을 잘 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동자들이 기계 공학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기계, 설비들의 생산 능률은 보다 더 제고될 것이며 그 수명도 연장될 것이다. 또한 지도 일'군들이 기계 공학 리론을 잘 알게 된다면 생산 공정에 대한 그들의 기술적 지도가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기계 공학의 발전은 기계, 설비에 대한 인민 경제의 장성하는 수요를 량, 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기계,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고 공장, 기업소의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이게 함으로써 기술 혁명을 힘 있게 촉진한다.

기계 공학을 기술 혁명의 현실적 요구 수준에 상응하게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계 공학 연구에 필요한 물질 기술적 로대를 튼튼히 꾸려 주고 이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 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잘 구비해 주어야 한다.

전면적 기술 혁명의 현 단계에서 기계 공학의 급속한 발전은 결코 이 부문 일'군들의 열성과 책임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에 와서는 전문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로동자들, 지도 일'군들 누구나가 다 기계 공학을 연구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특히는 생산 지도 일'군들이 기계 공학을 깊이 연구하고 이에 관심을 돌림으로써 기계 공학을 짧은 기간 내에 세계적 수준에로 끌어 올릴 데 대한 당'적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박 원 석

근로자 제 12 호 (루계 250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주 소•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6월 17일 발 행• 1964년 6월 20일

ㄱ—430373 값 40 전